

# 우리네 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2 09/1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kdta@chollan.net  
홈페이지: www.kdta.or.kr

##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있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비닐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89호 2002년 09/10월호

창간호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등록인 이경내, 김희정/펴낸날 2002년 9월 15일

|                |                                   |          |
|----------------|-----------------------------------|----------|
| 2 권두언          | 애는 낳는다고 저절로 자라나요?                 | 이강실      |
| 5 보육정책 1       | 보육을 다시 생각한다.                      | 보육정책위    |
| 10 보육정책 2      | 2002년 서울 시비 추가지원에 대하여             | 편집부      |
| 15 특집 1        | 양성평등 워크숍을 준비하며...                 | 서정은      |
| 18 특집 2        | 양성평등? 우리 여성우월주의교육을 하지             | 편집부      |
| 24 보육제안 1      | 보육일지 어떻게 쓸 것인가?                   | 서은희      |
| 30 보육제안 2      | 하늘보고 땅을 밟고 놀아보아요                  | 서은희      |
| 34 현장교육 1      | 환경지킴이 된 한미어린이들                    | 이성봉      |
| 37 현장교육 2      | 축구와 월드컵 프로젝트                      | 부안지, 백춘하 |
| 41 교육토론        | 21세기 우리의 보육철학은 무엇인가?              | 본회 교육부   |
| 44 현장소식 1      | 해맑은 세상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인 할머니(별명)의..... | 안미경      |
| 45 현장소식 2      | 그날 그곳에선 무슨일이...                   | 류신정      |
| 47 현장소식 3      | 다시 부활한 여름 수련회여 영원하라!!             | 지연       |
| 48 현장소식 4      | 너에게 나를 보낸다.                       | 편집부      |
| 49 현장소식 5      | 땀! 서울자부                           | 김미나      |
| 52 어린이와 건강     | 어린이집의 아동 건강에 관한 Q&A               | 편집부      |
| 56 인물탐방기       | 보육과의 주정미 과장을 만나보았습니다.             | 편집부      |
| 59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 씩씩이아이들의 이야기                       | 김수연      |
| 61 아이들과의 하루    | 동자꽃만 이야기                          | 양보영      |
| 62 육아일기        | 9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 전경숙      |
| 63 좋은 그림책소개    | 모자사세요                             | 김경혜      |
| 64 세상읽기        | 정치판에는 가을이 없다                      | 황미혜      |
| 66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 하늘은 높고 보육교사는 살찌는 계절?              | 이윤경      |
| 69 목소리         | 연장 보육과 어린이집 휴가 노동 사건              | 김숙자      |
| 70 알람          |                                   | 편집부      |
| 75 보육계동향       |                                   | 편집부      |
| 78 소식과 소식      |                                   | 편집부      |
| 82 편집부에서       |                                   | 편집부      |

## 애는 낳는다고 저절로 자라나요?

이강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들은 나보고 많은 일을 하느라고 수고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야지요'라고 웃으면서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자식을 키우는 여성들을 보면, 거기에다가 직장생활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위대해 보이기 때문이다.

직장일, 가정일 그리고 양육일까지 도맡아하는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일의 몇 배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여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들이라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여성들이 어디 아이를 맘대로 낳을 수 있겠는가? 아이 낳는 것이 두렵다. 아이는 갖고 싶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여성들보고 자기만 편하자고 아이를 안낳는 이기적인 여성이라고 혼을 낸다. 이기적인 여성들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자연히 돈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 못버는 노인들만 많아진다고 불평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들에게 직장 그만두고 가정에 돌아가서 애나 낳고 키우라고 말할 것인가? 물론 그것을 원하거나 그럴 여건이 되는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거나 또한 경제적인 이유이든 무슨 이유이든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여자에게만 돈도 벌라, 애도 보라, 살림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강요한다는 것은 엄청난 억지이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53%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관계가 전업 주부어머니보다 더 좋다고 한다. 24시간 자녀와 부딪힘으로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감정의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며, 자녀들간의 단결력을 강화하며,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자녀를 객관적으로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희생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적기 때문이다. 이제 육아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문제이며, 사적인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더군다나 출산율이 1.3명으로 줄어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보육문제

## 보육을 다시 생각한다.

가 단순히 아이들의 보육만을 권리와 여성들의 일할 권리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성원을 재생산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여성이 직장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영유아보육법이 생긴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은 아이들을 재정적인 부담없이 마음놓고 맡길 만한 곳을 찾기 힘들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무엇보다도, 보육비가 너무 비싸서 월급의 대부분을 갚다 바쳐야 할 형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공립시설을 많이 늘려 싸고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제도는 부모의 욕구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보육제도가 과도하게 민간에게 의존함으로써 부모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보육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있으며 정부가 관리하는 국공립시설은, 2000년 9월 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이것은 보육제도의 질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시설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둔 채 국공립시설만을 지원,관리하므로 민간시설은 시설대로 교사인건비나 급간식 비용을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자격기준과 관리체계, 보육환경과 설치 기준 등이 엄격하지 않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찾기 어렵다.

또한 보육제도의 과도한 민간의존은 각 가정의 조건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성이 낮은 장애아나 영아의 보육시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애를 태우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행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을 늘리는 방법과 아울러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와 처우와 개선, 시설환경, 운영, 설치기준의 강화 및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장애통합보육, 영아보육, 야간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제 보육정책은 단순히 빈곤계층의 자녀를 도와주는 복지차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성원의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야할 여성들을 위해 하루 빨리 해

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에서는 보육을 국가전략사업화해서 고용정책, 인력개발정책, 아동복지정책, 유아교육정책, 여성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관점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제 보육정책은 여성의 평생 일할 권리,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 그리고 남성의 보육 참여권리가 동시에 추구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보육문제가 여성노인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많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의 구멍을 뚫는다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어서 남편,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허리가 꼬부라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손주에게 매여 자유가 없으니, 얼마나 딱한 노릇인가! 그러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찢찢매는 딸을 매정하게 모른 채 하면서 내 생활을 즐기겠다고 하면 그것은 영악없이 이기적이고 못된 친정어머니 시업마가 되는 것이다. 사회가 담당해야 할 보육문제를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대신 담당해야 하는 이 사회는 여성노인인권유린사회이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너도 나도 여성보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대통령후보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육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보육정책은 선심성공약이나 선거용발언으로 그쳐 또 다시 여성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대선의 공간을 이용하여 여성계는 보육교사회를 중심으로 올바른보육정책을 홍보하고 이것이 후보들의 선거공약사항으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보육을 다시 생각한다.

정리 보육정책위

### ❧ 다시 보육을 이야기한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맞벌이부부에게 보육은 더 이상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인구사회학적으로나 성인지적으로 아동양육의 문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걸맞은 수준과 내용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의 보육시설은 유치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기관쯤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2002년 들어와서 보육문제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복지부와 여성부가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제시하는 등 정부의 보육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을 주요과제 중 하나가 보육의 공공성 확보이며 본회도 상반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서명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하반기 대선을 맞이하여 대선주자들은 보육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회가 앞으로 과제로 틀어쥐고 나갈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본 글은 왜 보육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보육은 어떤 방향을 추구하여야 하는지를 현대사회의 변화상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시 한번 보육운동의 주체로서 우리 회의 역할과 임무를 상기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고민은 정리하여 다음 호에 실도록 하겠다.

### ❧ 보육,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육은 가족성원 이외의 제3자가 아동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서비스이다. 정부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짓는다면 보육은 보호자가 수요자이고 보육시설이 공급자이며, 정부는 공급자일 수도(국공립의 경우), 중개자일 수도 있는(민간의 경우) 사회적 양육체제이다. 현대사회는 여러 변화들을 겪으면서 아동양육에 다양하게 개입해 왔다. 사회의 변화상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보육의 전망을 언급하기에 앞서 보육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정리하는 것이 글의 이해에 도움을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흔히 산업화·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다양한 가족구조의 등장,

노령화 및 소자녀화라는 문구들로 특징짓는다.

세대·사회와 고립된 핵가족시대의 부모는 육아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 결핍된 부모·자녀간의 심리·정서적 고갈을 겪기도 한다.

이혼·별거와 같은 가족구조의 해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족, 동성애부부가족, 소년소녀가족, 동거가족 등 새로운 가족구조는 자녀양육을 비롯하여 전형적 가족구조가 담당하였던 기능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보육의 직접적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이제까지 보육은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거나,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인력 확보의 기본전제로 여겨졌다. 작년에 세계적 컨설팅사인 매킨지가 매일경제사와 공동으로 발표한 '우먼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지식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90%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분담이 필요함이 크게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 와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특징은 노령화와 출산력 감소로 인한 소자녀화 추세이다.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후연금과 보건분야의 막대한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연금과 같은 복지혜택의 재원을 부과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이란, 미래의 노후생활을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인구가 납부하는 보험금으로 노령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지금처럼 심각한 출산력 감소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령인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미래 노동인구의 생산력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내야만 한다.

## 이 시대 아동을 낳고, 키운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

이와 같이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아동기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육아를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치부한 채 소극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미 출산율의 저하는 세계적 추세이며,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언론을 살펴보면, 만족할만한 보육시설의 부족이 출산율 저하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모만을 위해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해 보육시설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과거에 여성의 출산은 한 가족 혹은 가문에 국한된 종족보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일련의 사회현상들은 이제 더 이상 출산의 의미를 한 가족이나 가문에 가두어 둘 수 없게 만듦다. 여성의 출산은 '특별한 사회적 기여'로서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 이후의 아동양육 역시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과 국가의 공동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양육은 부모·자녀관계라는 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미래 사회의 주제를 양육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가 무관심할 수가 없다. 특히 아동은 가정의 사회경제

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동양육을 전적으로 여성이나 가정에게만 책임지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89년에 체결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아동양육을 위해 부모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전산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정책을 단지 모성보호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여성인력의 확보나 출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언급하였듯이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여러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동의 건전한 출생과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초기 영아기(생후 1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시기는 건강이나 뇌의 발달, 애착형성 등 신체·정서적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양육환경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출산휴가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요구는 감고대와 같을 뿐이다.

## 아동양육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현대사회의 여러 객관적 요인들과 영유아기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을 되짚어 보았으며, 사회적 양육은 보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육교사가 아동의 천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보육시설이 아동의 가정일 수는 없다. 보육은 어디까지나 아동의 가정을 대체하는 개념일 뿐이다. 가정과 역할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로 보육의 몫이다. 때문에 우리는 보육의 전망과 과제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아동양육을 위해 어떠한 가정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가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의 흐름을 통해 아동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어떠한 상을 지녀야 할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육아휴직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작년에야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육아휴직급여가 턱없이 비현실적이고 육아휴직 후 사업장으로의 복귀가능성이 불투명한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육아휴직 신청자는 극히 적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은 아직도 두 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역시 요구·보장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의 활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이행대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양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질 좋은 영아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보육율은 12%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설 확충과 함께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지원과 질적 관리를 통해 그 질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출산 후 1년간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수당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에 육아휴직급여로 월 30만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보도되었다.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시기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출산율의 감소추세를 일정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만 6세 미만(일본)에서부터 만 20세(프랑스)까지를 대상으로 아

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 아동의 연·월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양육의 형태나 주양육자가 달라질 수 있다. 각 가정과 아동이 처한 환경과 육구의 다양성은 사회적 양육지원체계 역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아동양육과 관련한 지식·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양육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과 같이 전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질 높은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 역시 다양한 처지와 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아보육, 방과후보육,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과 같이 현재 미진한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는 서비스 외에도 가벼운 질병으로 아픈 아동을 보육하는 서비스(일본에서는 이를 병아보육이라 부른다)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이나 일일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아동 성장·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가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건전한 아동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스웨덴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 ☞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는 한 사회가 아동이 속한 가정에 지원하는 여러 다양한 체계 중의 하나이자, 다른 지원체계와 맞물려 제공된다. 따라서 보육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갖추고 있는 기존의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필요로 하는 양육지원의 형태와 내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극히 소극적이며 양육지원체계 역시 다양하지 못한 사회에 속한다. 어찌 보면 기존 양육지원체제로서 보육시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보육사업은 빈민구제나 기·미아와 같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의 여타 기능과 마찬가지로 아동양육·교육의 기능은 점차 전문화·분업화되어 빈민층에서 일반가정에까지 보육대상은 확대되었고, 보육의 개념도 신체적 보호라는 극히 협소한 것에서 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단순한 보호와 교육의 개념적 결합을 뛰어넘어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발달을 위한 제반 서비스활동으로 복잡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한다. 보육시설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양육을 위해 가정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재정안정,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지역적으로 고른 시설의 배치, 보육서비스의 질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시설은 보육료 수입에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민간시설과 달리 안정된 재정을 확보하며, 국가의 관리

와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또한 안정되어 있고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보장된다. 특히 고비용의 특수보육(예컨대 장애아보육, 연장보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에도 일조하게 된다. 2001년 12월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은 6.5%(13,06개소)로, 전국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13.9%만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공보육과, 보다 평준화된 보육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하다. 국공립의 비중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의 확충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 평가인증제가 도입되고 정착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간시설에도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과의 서비스 경쟁으로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보육교사들의 처우 역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비가 지원되는 저소득층가구의 자격요건이 현재보다 상향조정되어 평균가구소득 이하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조건이 완화되었을 때 대상가구는 현 1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이 병행되었을 때 진정한 공보육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의 확대는 추후 완전한 차등보육료제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전단계이다. 그러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가구별 수입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소득 전문직종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과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운동차원에서나 이후 보육운동에서 제기되는 한 과업으로서 조세개혁을 주장하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본 글에서는 영아보육, 방과후 보육, 장애아 보육 등 구체적 서비스의 방향까지 다루는 것을 생략하였다. 굳이 언급하자면, 영아보육시설은 두 자녀 이상의 보육이나 혼합연령의 이점 등을 고려해볼 때 유아보육과 통합을 기본으로 하되 연령에 따른 층별 구분과 같은 공간의 구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 역시 필요에 의한 전담을 제외하고는 통합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로 이루어지는 시설 확충은 통합시설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방과후 보육은 영유아기와 구별되는 대상의 특성상 전담시설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 ☞ 다시 시작하며

앞으로 아동양육은 여성의 고유책임을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조금 떠맡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회의 적극적인 투자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우선시하는 내용으로 인식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양육 지원체계의 일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인식과 역할 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보육의 대상은 아동이나, 보육의 필요성은 국가 성원 모두에게 존재한다.

## 2002년 서울 시비 추가지원에 대하여

정리 편집부

아래의 글은 지난 2002년 8월26일 서울시비 추가예산지원기준과

그에 대한 본회 서울지부의 의견서를 모은 것입니다.

(보육수준향상 4개년계획의 세부추진사항 관련 2002년 서울시 추가예산지원기준.)

### 1. 야간보육 활성화

#### ○ 대 상

정부지원 및 민간시설로서 19:30이후  
3시간미만 보육하는 시설 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 ○ 지원기준 (시비 50%, 구비 50%)

— 교사에게 시간외수당 1일 3시간기준 12,000원(월 300,000원) 지원(아동5명당 1인)  
※ 19:30이후 3시간이상 보육시설에는 2002.7월부터 국비로 지원 (아동5명당 1인)

#### ○ 지원방법

— 2002. 10월부터 지원  
— 매년 110개소씩(자치구별 4개소 정도) 확대지원하며  
야간보육을 희망하는 시설중에서 구별로 신청 및 지정절차를 거쳐 지원

### 2. 종사자 처우개선

#### ○ 대 상

— 시설장: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 보육교사: 전 보육시설

#### ○ 지원기준 (시비 50%, 구비 50%)

— 시설장 월150,000원, 보육교사 월100,000원

— 설치후 3개월이 경과한 시설의 시설장

— 영아, 장애아 및 유아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로서

동일시설에서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교사

— 아동대 교사 비율을 준수한 시설의 교사

(2세미만 5:1, 2세 7:1, 3세이상 20:1)

— 현재 월평균 보수액이 70만원이상인 교사

(연구수당 지급으로 최저 80만원이상 수준 유지)

※ 제외대상: 시간제,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및

24시간, 방과후, 특수(장애)교사 등 겸직시 중복지원 배제

※ 40인미만 국공립시설에는 시설장 연구수당 지급 불가.

가정보육시설에 시설장 1인 근무시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급불가

#### ○ 지원방법

— 2002. 10월부터 지원

## 서울시 2002년 시비 추가지원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가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보육수준향상을 위한 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자체예산으로 시비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본회의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보육현장의 의견과 부모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보육교사 연구수당 시비 지원에 대하여

보육교사 연구수당의 지급은 민간까지 포함한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공립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며 일하는 가정과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의 수고가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아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누적된 피로, 외육상실, 연구시간 부족, 재충전의 기회 박탈 등으로 보육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민간시설의 교사들에게 최저기준(80만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 ※※※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면

현재 월평균 보수액이 70만원 이상인 교사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70만원미만으로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부담을 이유로 지원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최저임금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또다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제에 민간시설의 임금수준이 이 기준을 맞추도록 시 차원에서 독려하여 서울시의 모든 보육교사들이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야간보육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하여

부모의 일의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야간보육의 필요성과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간보육 활성화의 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 야간보육을 담당한 시설과 교사에 대해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왕에 야간보육활성화를 추진한다면 시

작부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1. 먼저 야간보육과 같은 특수보육활성화 계획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야간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만 효율적인 확충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 ① 야간보육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 ② 현재 야간보육의 공급은 어느 정도인지,
- ③ 야간보육제공시 문제는 무엇인지,
- ④ 야간보육이 어느정도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2. 발표된 야간보육활성화에 따른 보육교사 지원기준과 방식은 보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우려됩니다.

—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기준을 보면 정부지원 및 민간시설로서 19:30이후 3시간미만(밤 10시 30분이전) 보육하는 시설 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시간외수당 1일 3시간기준 1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로 9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교사와 시설장이 교대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해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12시간인 것은 아니며 현재 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당지급도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시하고 19시 30분부터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단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재 보육교사들은 야간보육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미 평균 근로시간을 넘겨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야간보육을 위해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하루 15시간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불행히 그렇게 하고 있는 교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시간 근무를 하지만 어떤 지원책도 없는 교사들과 야간보육을 하는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에 주는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정으로 근무조건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 장시간 근무를 인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근무시간(하루 8시간)으로 근무를 줄이고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보육활성화가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시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합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근무의욕저하는 아이들과의 일상생활, 교육활동 등에 영향을 주어 보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부모와 아이, 교사, 운영자가 만족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3. 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

- ① 야간보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전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담교사는 정교사로 채용되어야 하며 주간교사와의 인수인계시간까지 포함하여 저녁 10시 30분까지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인건비는 오후 6시부터는 시간외 근무로 평상시급의 150%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② 야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주간과는 다른 반별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녁식사지도와 보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으로 인해 전담교사는 2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③ 저녁식사를 위한 취사인력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④ 비상벨 시설, 순찰대의 정기순찰 등의 방범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⑤ 야간보육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확보된 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매년 110개소씩 확충이라는 무리한 시설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원시설의 수를 줄이더라도 전담교사 채용과 야간보육시설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사업의 진정한 발전은 양적확충과 질적 개선이 함께 진행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지원이 보육수준 향상 4개년 계획의 세부추진사항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진정 서울시가 앞으로의 보육사업의 발전과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4개년 계획'에 대해 열린 공청회를 마련하여 시민들과 현장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수립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현장과 서울시가 함께 이해와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1년 8월 31일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 특집-양성평등한 어린이집 만들기

## 양성평등 워크숍을 준비하며...



서정은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숙명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봄에 보육교사회 사무국에 들러 잠깐 이야기하던 중, '양성평등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어린이집 역할 세우기' 연구를 한다가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것 참, 재미있는 주제네"라고 한마디 던졌더니... 얼마 후 바로 연락이 왔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개선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기획)팀으로 박정애 선생님, 이선주 교육부장님, 유정은 교수님, 그리고 내가 참여하였고 벌써 서울, 목포지역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마친 상태이다.

다음은 현재까지 주제를 연구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의식의 흐름을 재구성한 것이다. 함께 생각하고 토론할 쟁점으로 삼아도 좋고 반박하고 오류를 지적해도 좋겠다.



#### 왜 필요하지?

맨 처음 단계는, 주제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보육교사 워크숍을 준비하기에 앞서, 연구자인 내가 그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게 필요하다.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주제를 보육교사들과 왜 이야기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함께 작업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우리 회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주제 의식은 그런 면에서 적절하다. 즉, 아이들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남, 녀 성을 차별하지 않고 양성평등하게 키우는 육아문화를 형성하는게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보육교사, 부모를 포함하여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추진하고 견인하는 힘으로써, 현재의 보육교사들이 의식적으로 각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극과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다른데서는 뭐라고 했나?

다음으로는,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찾아서 살펴보게 되었다. 남녀는 다른가? 아동은 남녀로 어떻게 발달하는가? 아동들은 언제, 어떻게 남녀 성별 역할을 알아가는가? 남녀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고 재생하는 기제로 부모, 문화, 사회, 교육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등등, 중요한 소주제를 뽑아보았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갖게 되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구사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성에 따라 다른 평가와 기대를 갖고 있다.性に 대한 다른 평

가와 기대는, 외국의 어느 학자가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 10가지의 하나로 꿈을 정도로 보편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성적 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어느정도 흐름을 잡아가고 있어, 자료를 구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



#### 무엇이 문제인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것, 내 것의 문제가 돌아온다.

앞서 외국의 성적 차별과 그 개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를 접하니,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은 언뜻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 용어는 오래전부터 인정된 학술용어는 아니며, 보다 실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출발은, 용어가 지닌 복합성을 푸는 것이요, 이는 곧 각각의 낱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양성(兩性)이라 했을 때, 이는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인 이해를 포함한다.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생물학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의학, 생리심리학계에서,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여성학과 발달심리학계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조하여 탐색하였다. 물론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또 하나, 평등이라 했을 때, 누구로부터, 무엇을 위한 평등인가? 평등의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즉 '성평등'이 여성의 억울함과 성차별을 드러내어 여성의 입장에서 지위의 부상과 역전을 담고 있다면, '양성평등'이라 함은, 그속에서 남성도 함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시각의 전환과, 성적 차별이 곧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인간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공통의 처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라 했을 때, 교육의 대상인 아동들의 발달단계에서, 사회문화적 구성속에서 '아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아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 더 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아와 여아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차이로, 아동 스스로의 개성과 특질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가르치는 행위, 즉 교수활동과 교수방법, 교수, 학습 자료와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성차별적인가? 양성평등적인가? 라고 물었을 때, 워크샵에 참여한 교사들 대부분 자신의 어린이집에서는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성차별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머릿속 관념과 인식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에 적절한 행동과 태도로 나타날 것인가? 몇몇 자료들은 이러한 물음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교사들은 성차별적인 행동과 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양성평등교육인가?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정의는 단 한 곳(교육인적자원부)을 제외하고

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이라...? '양성평등'이라고 규정한 어떠한 것'을 교육한다는 것인가? 과연 '교육'으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다수의 시설장과 교사들의 생각은, '양성평등'은 특정한 시간에 '교육'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은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포괄적·통합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적, 통합적인 양성평등적 접근은, 미리 계획된 교육계획안과 활동과정은 물론,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비롯한 성인과 아동이 양성 중 어느 성에 얽매이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의식아래 서로의 관계 속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과 아동이 양성평등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접근의 일환으로, 우리 회에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 대안적인 내용을 어느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주장이 구체적으로 아동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교사와 아동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의 경향은 허용된 시간의 끝단까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는 데 있다.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은 여러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서며, 그중 어느 것은 해결된 채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또 어느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존재한다.

적식은 외부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구성된다.



## 양성평등? 우린 여성우월주의교육을 하지

정리 · 편집부

- 하늘 ♣♣어린이집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 강아지풀 우린 양성평등 교육을 안 하고 여성 우월주의 교육을 한다고 이미 전화 받고 나서 점심시간에 교사들과 다 얘기했어요.(웃음)
- 하늘 왜 여성우월주의 교육을 하는데?
- 코스모스 나는 평등교육과 양성교육이 헷갈려. 옛날에 내가 어떤 청년단체에서 양성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거기는 외국사례를 들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성별은 N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리고 성별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안 들어 간 상태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실험을 했대요. 그런 내용을 양성교육 개념으로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육교사회에서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딱 헷갈리는 거야. 양성교육과 평등교육이 혼합된 건가 하고 헷갈려서 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개념도 못 잡고 있어요.
- 하늘 옛날에는 성평등교육이라고 했잖아.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깔려있는 건 두 개의 성 자체를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두 성 모두 다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자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해. 예전 성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들이 많은 불평등을 받았고 지금도 그리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역차별이라는 것도 있고 남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두기도 하는데 이제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그런 의미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지 않나?
- 코스모스 그러면 접근방식이 성에 대한 분리를 안 하고 즉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자체를 없애고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이미 성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등하게 들어가야 한다 중 어떤 거예요?
- 하늘 남성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은 이래야 한다는 편견이나 시각이 아니어도 그 남성이라는 성이 가지고 있는 생물적인 특성,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물적인 특성, 그리고 생물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서 오는 특성들이 있잖아.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말자는 거지. 근데 성 자체를 인정하지 말고 그냥 무성으로 가자는 건 오히려 극단적인 거 같애.
- 코스모스 나도 극단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 남자놀이에 더 허용적이다?

- 하늘 여자아이들은 역할놀이를 참 좋아해.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많이 갖고 놀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 사이에서 자동차는 남자 놀이, 소꿉놀이는 여자 놀이라고 선입견으로 굳어져 있기도 하고 여자아이가 자동차를 갖고 놀거나 하면 잘 한다고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소꿉 놀이 갖고 놀면 쪼잔하다고 그러지 않나?
- 십사리 그런 거는 안 하는데...
- 하늘 그럼, 아이들이 블록으로 뭉개 만들어 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칭찬해 주지, 근데 여자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열심히 활발히 하고 있더라도 별 반응이 없지 않아요?
- 코스모스 좀 그런 게 있지. 여자아이들이 요정 놀이 등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 그것에 대해 걱정부터 하고 요정놀이 좀 그만하라고 하고 남자아이들이 블록놀이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는 제재를 가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요정놀이 보다는 블록놀이에 허용적인 거 같아.
- 십사리 나는 특별히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남자아이를 구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사회는 남성성을 더 좋아하고 중요시해요.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해도 남성처럼 일해야 하는 분위기고 남성성이 더 발달한 사람이 인정받고... 때문에 불평등한 게 많죠. 그래서 나는 남자아이들에게 여성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 꼭 일에서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을 구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의 이유 때문에 주로 남자애들을 많이 시키지요. 여러 가지 잡일을. (웃음)
- 코스모스 난 은연중에 양성이라는 개념이 성에 대한 '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애들을 대할 때도 어떠한 성성이 나타나면 부정했던 것 같아. 남자아이들에게서 남성적인 기질이 나타나면 최대한 그 기질이 안 나타나게 하려고 압력을 행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성의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 ## 남자로 태어나는 걸까? 길러지는 걸까?
- 십사리 근데 남성성이라고 대변되는 게 폭력성이라 생각이 되니까 제기하는 거 아닌가?
- 코스모스 나는 폭력성이 남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십사리 폭력성이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오니까. 나는 굳이 남성성, 여성성 구분하지 않는데 남성적인 면에서 나오는 강압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하지. 그것을 잠재워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 하늘 그 폭력성 자체가 남성성인건지 아니면 남자아이가 사회적으로 키워지면서 폭력적으로 되는 건지는 생각을 해 봐야지.
- 십사리 나는 기본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유전인자에 성성을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

다 남자들은 활동적이고 폭력적이고 보다 논리적이고 그런 거, 그게 몇 천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모계사회에서 부계중심사회로 넘어오면서의 세월이 얼마야, 그러니 환경인자로 유전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성으로 태어나서 사회적인 남성으로 길러졌다고 보는 관정보다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성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회속에서 강화되어 간다고 생각해(학문적 검증을 받지 않은 개인적 의견임)

코스모스 나는 폭력성을 성적 특성으로 연결해서 생각한 적은 없어.

십사리 우리 교사들이 제일 크게 반응하는 게 아이들의 폭력성이잖아.

코스모스 그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폭력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게 하나의 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 봤어. 어릴 때 내 속에도 폭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거지. 나도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나가려고 할 때 주위의 반응이 틀렸어요. 남자아이들에게도 제재는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오빠나 내 동생이 그럴 때와 내가 그럴 때 부모님의 반응이 틀리니까 '아, 여자애는 그러면 안되는구나' 하고는 그냥 우는 방식으로 풀었어요. 원래 여자애가 더 평화주의적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십사리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는 안되는 간에 남자들이 더 표출을 많이 하고, 내가 봐 왔던 남자들도 그러하고...

아들 그러니까 그것이 고유의 남성성일까, 아니면 여자는 한 번 표출을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와서 잠재되는 거고 남자에게는 제재가 심하지 않아서 폭력성이 길러지는 걸까의 문제인데 십사리는 이미 오래된 환경적인 유전자가 유전되어 이미 남자애들에게는 그 유전인자가 있을 거라는 거지?

십사리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지, 여자보다는.

강이지품 길러지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많이 허용이 되지.

십사리 그것도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게 더 많은 거 같애. 왜냐면 영아를 돌보는데 남자애들이 더 폭력적이야.

코스모스 왜? ○○하고 △△를 보더라도 ○○가 더 폭력적이야. (○○는 여아, △△는 남아입니다.)

십사리 ○○는 좀 독특한 거고,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강이지품 대략적으로 보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더 폭력적인 게 사실인데 자라면서 남자 아이는 누구를 때려도 "됐어, 됐어, 사내내석은 그래도 돼" 하는 분위기이고 여자아이들은 "조심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누구는 더 강화되고 누구는 잠재되는 거지. 난 폭력성보다 색종이 색깔 하나를 고르는데 아이들이 파란색 따지고 분홍색 따지면 화가 치밀어. 그 색깔 집으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양말에도 어떤 색깔을 고집하고 그런 것들이 가족 내에서 더 강화되는 듯 해.

## 양성평등 강박관념?

코스모스 난 남자애들이 파란색을 고르면 내가 스스로 '저건 남자색이다' 라면서 괜히 빨간색 쥐버리고 여자애들이 빨간색 고르면 '너무 여성적이다' 그랬는데 아이들 개개인의 색깔에 대한 기호는 생각 못하고 성평등에 집착해서 색깔을 내 의도적으로 섞어 놨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 여기는 남자아이가 파란색을 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강제로...(웃음)

강이지품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아이들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부모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 교사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아저씨가 치마를 했냐?" 면서 벌써 성고정관념에 빠진다는 거죠.

십사리 그게 신기해, 우리나라 부모나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거든?

아들 근데 아이들이 접하는 세계가 엄마와 보육교사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 무수한 미디어와 다른 친척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십사리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아들 그것은 인정해. 근데 처음에 얘기한 것은 날 때부터 아이가 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태어나거나 영아기에서부터 받는 사회적 영향 때문에 성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건지의 예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십사리 이걸 학자들이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코스모스 그럼, 연구를 했더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아들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된 거라면 지금부터 환경을 바꿔주면서 유전인자를 바꿔야지.

코스모스 그럼, 우린 환경운동을 하는 거야?(웃음)

십사리 엄마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도 잘 먹잖아.

강이지품 그 음식을 먹어 봤으니까.

십사리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축 내려오면서 기질이나 이런 게 닮아 온다는 거지.

아들 정리하면 환경적 유전인자이든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이든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 고정화와 성적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한 색종이 색깔을 의도적으로 섞어주는 거 이외에.

코스모스 만약에 여자 애들이 목소리가 작고 앞에 나와서 주저주저하면 여자로서 수동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 기회를 많이 주고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소리 작은 것도 그 아이의 원래 기질일 수 있는데 너무 성평등 교육에 집착해서 주입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사리 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생활속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그 또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평등하게, 힘의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아이들이

좀 더 세니까 힘쓰는 일은 남자아이들이 좀 더 하게 하지만, 상 뒤기, 동생 돌봐주기, 동생 쉬하는 것 도와주기 뭐 이런 것도 같이 경험하게 하지요.

이들 선생님은 남자아이들이 힘이 더 세다고 했는데 (삼사리 - 전수정은 남자애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겐 힘쓰는 일을 많이 해) 무의식적으로 남자애들이 더 세다는 생각에 힘쓰는 일은 남자아이들에게 주고 동생을 돌본다든지 하는 일에 여자아이들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건 아닐까?

삼사리 나는 특히 동생 돌보기 등은 남자아이들에게 더 부탁해.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코스모스 - 난 눈에 보이는 대로 부탁하는데..)

이들 혹시 무의식적으로 여자아이를 찾지는 않을까?

코스모스 무의식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더 잘 들어주는 아이를 찾아(웃음), 특별히 여자 남자를 구별하지는 않아요.

삼사리 다만 나는 가정에서 엄마들이 남자라고 안 시키고 아빠들이 남자라고 안 시키는 것들에 대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경험하게 해요.

처음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 중에 "왜 남자가 이거 해요? 우리 아빠는 안 하는데?"라고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지죠.

강이지를 아이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남자도 치마 입을 수 있고, 새로운 애가 "남자는 치마 입으면 안돼"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 "남자도 치마 입을 수 있지요~. 머리도 기를 수 있지요~" 하고 얘기해요.

코스모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성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했네요. 나는 좀 극단적이었어. 애들이 "남자들은 이리 오고 여자들은 방으로 가자!" 그러면 그것 자체가 되게 거슬리고 무리를 짓는다는 것이 차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일부러 섞으려고 했어요.

이들 우리가 성평등 교육을 했을 때 오류를 범하는 게 '다 섞어 놔야 한다. 모든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다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자애들이 "남자들은 저리 가" 그러면 "왜 그래? 같이 놀아야지" 하면서 교사가 개입을 해.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성평등교육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보면

우리도 여자들끼리 모이고 싶을 때가 있고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편할 때가 있잖아. (삼사리 - 맞아,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되는 놀이가 있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민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또 하나는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성평등적인 교육을 하려고 해. 그런데 가끔 느낌으로 전해질 때 성평등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모스 몸에 땀 성평등의식과 이성의 성평등의식이 좀 다른 것도 있죠. 머리에서 보다는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성고정관념이 아이들에게 더 흡수가 빠를 수도 있어요.

이들 아까 어린이집에서 술찬이가 레이스 달린 속옷을 입었어. 그 때 교사들은 '어머, 예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해줘. 근데 여자애들이 남성적인 것을 입고 오면 반응을 하나요?

삼사리 저희가 남자 팬티를 입고 와서 격려해줬어요. (웃음)

코스모스 난 좀 우습다고 생각했어.

강이지를 우리 애들 놀이 할 때 남자 윗 속옷 입히잖아?

코스모스 여자 아이들한테는 "와! 이쁘다"라고 하지 않잖아?

삼사리 이것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성이 남성성을 쫓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정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허용하기 때문에 난 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 아이가 파란색 옷을 입고 오면 어린아이들도 별 말을 안 해요. 근데 남자 아이가 분홍색 옷을 입고 오면 여자 옷 입고 왔다고 놀려요.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오거나 하면 이쁘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들 나는 이번에 우리회에서 하는 양성평등 워크샵을 참가하면서 느꼈는데 내 안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여성성이 강한 사람한테는 "젠 왜 저러나 하면서..." 여성성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것들...

코스모스 나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 목소리 작은 애들은 여성성이 강하다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 평화로운 모습이고 그것이 여성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걸 인정했을 텐데 목소리 작은 게 내 눈에 너무 싫게 보이는 거야. 나중에 크면 그 아이가 고생할 거 같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고 앞에 나가서 당당함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특성을 마이너스 요소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여자는 보다 더 당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사리 암암리에 여성적 피해의식일 수도 있지요. 보육교사들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여성이 사회적으로 받는 불평등에 대해... 나의 다음 세대가 여성성을 고스란히 가지고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우리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여성성을 갖기보다는 중성적인 성향을 갖기를 바래요.

이들 그거는 아까 얘기한 양성평등이 무성이나는 애기와 마찬가지로 중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성이 없는 거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성평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성을 강요하고 있었지요.

코스모스 서로의 성적 특성을 없애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성이 다 인정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강해야 하고 그것은 남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던 거 같아요.

강이지를 한 아이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성적 특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성으로 강화되지 않고 그 성적 특성들이 모두 그 아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이 그 아이의 장점이 될 수 있게 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야겠지요.

양성평등을 주체로한 수다방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평소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작은 차이들이 나타나났습니다.

양성평등적 접근은 보육교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모스도 말했듯이 교사의 무의식적 태도에서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시사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적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 보육일지 어떻게 쓸 것인가?

서은희 · 본회 교육센터장

## □ 보육일지는 왜 써야 하나?

보육일지는 보육시설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일상의 기록이며, 교사 스스로 자신의 보육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자, 아동발달(관찰) 기록이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생활일지, 관찰일지, 건강일지 등)은 교사가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동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한 아동의 기록을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아동상담가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아동의 문제가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지속적인 것인지 결정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그 문제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의 기록은 해가 바뀌어 교사가 바뀔 때, 보육시설을 옮길 때,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교육프로그램일지, 나들이일지 등)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 및 유사 기관에 자신의 프로그램 방법과 효과를 알리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일지 쓰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차분하게 그 날의 보육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교사들에게 일지 쓰기는 마음의 큰 부담이 된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거나 교사로서의 큰 의무를 저버리는 것 같고, '그럼에도'라는 생각으로 대안을 찾고자 하니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현재 많은 교사들이 일지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한 일지를 교사 자신의 보육활동 평가자료로, 아동관찰 자료로 활용하는 교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매일 쓰기는 쓰나 그 내용이 다음의 보육활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서 무얼 하나 하는 회의가 들고 힘들게만 느껴진다.

계획→실행→평가→반영→계획... 너무 이론적이고 도식적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교사는 자신의 보육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항에 쓰는 일지라면 보육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지 쓰기를 통해 교사의 정체성을 높이는 것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 □ 의미 있는 내용이란?

기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활자로 기록되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어떤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일까?

간혹 일지에 하루 일정을 시간별(예: 7:30~10:00 등원 및 자유놀이, 10:00~10:30 오전간식, 10:30~11:00 미술활동-줄그림 그리기, 11:00~11:15 정리...)로 기록하는 선생님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은 시간별로 무엇을 했는지 제목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교사의 보육활동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또 일지와 일일교육계획안을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일일교육계획안은 말 그대로 교육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이다. 일지에는 계획했던 교육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교사의 평가가 기록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비형식적인 생활교육 또한 중요하다. 간식과 점심, 씻기, 정리하기, 자유놀이 등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삶의 방식을 배워나간다. 늘 반복되는 것이므로 그냥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아이들이 이런 일상 생활을 어떻게 배우고 익히고 있는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또래들과 또래,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 아이들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일지 속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꼭 기록해야 한다.

## □ 보육일지 쓰기

일지는 각 시설과 개별 선생님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다. 하나의 일지에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도 있고, 일지를 내용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예: 생활일지, 교육활동일지, 건강일지, 나들이일지, 아동관찰일지 등), 매 시기 연구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교사 자신의 활동을 기록할 수도 있다(예: 낮잠, 체벌, 욕 등). 또 일기 형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각 일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 일지 형식이 다르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지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는 교사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일지를 쓰는 일지 내용이 교사의 다음 보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활동, 일상생활, 아동관찰 등을 기록했다면 그 때의 기록이 이후 연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어느 날 한 아동의 문제 행동을 기록했다면 이 아이의 이런 행동이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고, 교사는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부모님과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오늘은 이 아이의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내일은 전혀 다른 일상을 기록한다면 이 일지는 아동의



대집단놀이: '땅뽕기 놀이' ⇨

★ 아이들과 동글게 둘러앉아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손으로 무릎을 치며 긴장을 풀었다. 느리게/빠르게, 강하게/약하게 등으로 변화를 주며 구음을 했다. 석철이와 민정이는 어깨까지 덩실거리며 무릎장단을 쳤다.

★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몸을 풀다 '어깨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씨동무' 하고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췌 어깨동무를 했다. 이제는 '이거하자'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과 정한 신호가 떨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놀이로 전환이 된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정인, 희선, 인혜, 민혁, 선희, 진철이는 놀이를 따라가기 어려운지 중간중간 멈춰 서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쳐다보았다. 놀이 시작 전에 이 놀이에 익숙한 아이들과 짝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땅뽕기놀이'는 어깨동무, 우리 집에 왜왔나, 돼지씨름 등 우리가 전에 부분놀이로 해 보았던 놀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놀이다. 그래서 처음 해 보는 놀이였지만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 물론 아이들에게 놀이 시작 전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시범을 보여 주었다.

★ 오늘 놀이의 절정은 가운데 선을 두고 두 팀이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목청을 돋구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 때 연진이와 창주가 서로 발로 차며 장난치다 연진이가 찬 발에 창주가 잘못 맞아 우는 바람에 놀이가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현민, 승희, 영애가 중재하여 연진이가 창주를 달래서 일으켜 주었다. 동태고 밀어낼 때 진철, 인혜, 미진이는 금방 밀려 저만치 떨어져 나간 반면, 모든 놀이에 적극적인 우리의 여성과워 민정이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끝까지 등밀기를 했다.

★ 아직 이 놀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 날 때 부분 놀이를 좀 더 해야겠다. 물론 자꾸 놀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겠지만 진철, 인혜, 미진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를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더불어 잘하는 아이들과 짝을 맺어 놀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낮잠 ⇨

(우리반 아이들은 낮잠을 안자는 대신 이 시간 이불을 깔고 자유롭게 누워 이야기를 듣는다)  
오늘은 '참새와 파리'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아마 오늘부터 참새와 파리를 보고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것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우리 반 이야기꾼 정희가 오늘도 내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자기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섰다.

교사: 오늘은 무슨 이야기야? 난 정희가 해 주는 할머니와 귀신 이야기가 재미있더라  
희운: 너 오늘은 이야기 끝까지 다해야 돼(지난 주에 정희가 이야기하다 수습이 안돼 중간

에 그만 두었던 일을 이야기함)

정희: 오늘은 아니야. 우리 할머니한테 새로 들은 옛날이야기 할거야

은경: 아, 빨리 해-

정희: 옛날에 옛날에 할머니하고 아들하구 살았어... (중략)

정희가 이야기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나 보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지난 주와 달리 기승 전결이 분명했다.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이 3월 초부터인데 이야기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희의 관심은 아주 대단하다. 함께 사시는 외할머니의 영향이 큰 듯하다. 정희가 낮잠 시간에 이야기를 시작하고부터 아이들도 조금씩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중략)

마당놀이 ⇨

★ 오후 간식 먹고 난 뒤 마당으로 나왔다. 결이와 몇 아이들이 미끄럼틀 아래에 있는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장난감 집을 만든다고 했다... (중략)

|                         |                                                                                                                                                                                                |
|-------------------------|------------------------------------------------------------------------------------------------------------------------------------------------------------------------------------------------|
| 건강 및 투약<br>(아동명/시간/투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영: 집에서 토했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잘 놀고 점심도 잘 먹음.</li> <li>동철: 점심을 조금밖에 먹지 않음. 별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낮잠 자고 난 뒤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 열을 재보니 37.5도였다. 엄마께 연락을 드</li> </ul> |
| 비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번 주 금요일 나들이와 관련하여 통신문 나감.</li> <li>다음 주 교사회의 때 청소구역에 대해 논의해야 겠음</li> </ul>                                                                             |

\* 이 일지는 24개월 미만 영아일지 양식입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 어린이집에서   |  |          |  |     |  | 가 정 에 서   |  |         |  |     |  |
| 배 변      |  | 수유 및 이유  |  | 수 면 |  | 배 변       |  | 수유 및 이유 |  | 수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 약      |  |          |  |     |  | 투 약       |  |         |  |     |  |
| 영아의 심리상태 |  | 영아의 놀이활동 |  |     |  | 엄마랑 · 아빠랑 |  |         |  |     |  |
|          |  |          |  |     |  |           |  |         |  |     |  |
| 부모님께     |  |          |  |     |  | 선생님께      |  |         |  |     |  |
|          |  |          |  |     |  |           |  |         |  |     |  |

## 하늘보고 땅을 밟고 놀아보아요

서은희 · 본회 교육센터장

### 골머리

“00야, 놀~자!”

여러분은 이 소리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처음엔 조용히 친구의 이름을 부르다 아무 대답이 없으면 조금씩 소리를 높여가며 다양한 톤으로 부르던 그 소리, 지금 30대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동네 이곳저곳을 놀이터 삼아 뛰놀던 이런저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놀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생계나 의무로써가 아니라 순전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중 순전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놀이다운 놀이를 하며 지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들의 놀이문화 현실과 놀이의 중요성, 놀이의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아이들의 놀이 현실

마음껏 뛰어 놀 공간이 없습니다.

놀이터가 있다지만 놀이터에는 커다란 놀이기구 몇 개만이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마당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법적으로 놀이터 설치가 의무지만 주택가는 이마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골목길도 자동차에 다 빼앗겨 버리고, 아이들은 곡예 하듯 차를 피해가며 놀아야 할 판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이곳 저곳에 ‘공터’가 있어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8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공터는 개발 논리에 밀려 이 도시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시간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 다른 공부장을 위해 학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강남에 사는 초등학교 아이의 하루를 보여 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끝나고 영어, 피아노, 체육관 등으로 일주일 내내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더군요. 아이는 학원 차를 기다리는 땀방울이 또는 학원차 안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그 힘든 강행군 속에서 한줄기 즐거운 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처럼 지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이와 비슷한 하루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른보다 더 바쁜 아이들, 이것이 요즘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은 함께 놀 친구가 없습니다.

방과후에 서로 다른 학원으로 흩어지느라 시간 맞춰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러니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노는 사회성 놀이보다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컴퓨터 게임이나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 등 개인놀이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이제는 컴퓨터게임이 아이들의 대표적인 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 송알송알  
손에는 땀국이 반질반질  
맨발에 흙먼지 울긋불긋  
몸뚱에 그을려 까무잡잡  
멍멍이가 보고 영아야 하겠네  
까마귀가 보고 아찌야 하겠네

이 노래의 노랫말처럼 흙먼지 뒤집어쓰며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히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된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놀이문화 현실입니다.

### 놀이의 중요성

놀이는 아이들의 신체발달을 도와줍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 신체 각 부분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몸을 제어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소근육과 대근육의 고른 발달과 민첩성, 순발력, 지구력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서구화된 식단과 놀이부족, 운동부족으로 생긴 소아비만 등과 같은 현대병을 놀이를 통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사람을 사귀고,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고, 이해하고, 약속을 지키는 등 사회 생활의 기본을 배웁니다. 혼자놀이가 아닌 이상 내가 아닌 상대방이 있을 것이고, 놀이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서로가 동의하는 놀이방법과 규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놀이 방법과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놀이하면서 새로이 정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같은 팀끼리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 원칙과 융통성, 규칙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랍니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님 또는 형제간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인지발달과 창의성발달 등을 도와줍니다.

놀이방법을 익혀나가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사고력과 판단력, 문제 해결력, 주의 집중력 등을 개발시켜 나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인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은 향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 놀이가 갖추어야 하는 특징

놀이는 자발성을 갖는다

어떤 놀이를 누구와 언제 어디서 시작해서 언제 마칠 것인가는 전적으로 놀이하는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 이런 자유를 방해받는다면 그것은 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놀이에서의 자발성은 책임감과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놀이 도중에 자기가 술래가 될 차례가 되었는데 그만 하겠다고 놀이에서 빠지는 아이들은 집단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다음 놀이 때 아이들이 함께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술래가 되어도 또 조금 힘들어도 놀이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합니다. 이런 놀이의 특성을 통해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는 일탈성을 갖는다.

늘 되풀이되는 일상생활은 해야 할 의무와 과제 등으로 우리를 늘 부담스럽게 합니다. 놀이의 일탈성은 일상이 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험에 대한 걱정, 숙제에 대한 걱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 등을 놀이는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렇다고 일상에 대한 무책임한 도피는 아닙니다. 어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맞았을 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일탈입니다. 놀이하는 동안 아이들은 일상의 버거운 문제들을 잠시 잊고 몰입합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느끼는 일탈감은 현실로 다시 되돌아 왔을 때 맞게 되는 일상의 의무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줍니다.

놀이는 재미있어야 한다

재미는 놀이의 핵심요소입니다. 재미없는 놀이는 놀이세계에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재미는 앞에

서 가르쳐 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는 순전히 노는 사람만의 몫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재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려서부터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놀이는 열린 구조이어야 한다.

열린 구조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놀이규칙, 인원, 방법 등이 개방적인 것을 말합니다. 놀이를 잘하거나 못할 때 깎두기를 시킨다든지,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끼워주거나 놀이 방법이 어렵거나 너무 쉬울 때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놀이가 가진 특징 중 가치 있는 것입니다.

### 놀이지도의 원칙

- 놀이방법은 놀이 시작 전에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놀이 중 관정이 요구될 때는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 놀이 규칙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 놀이 중 다툼이 생겼을 경우 가능하면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 놀이도구는 스스로 가져오거나 나누어 놀 수 있도록 합니다.

### 마무리

아이들에게 놀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아이들을 마냥 뛰어 놀게만 두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이중의 혼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놀이가 아이들 삶에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요즘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함께 공감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 환경지킴이 된 한미어린이들

### ❖ 사례 1

윤석 “선생님! 왜 다정쌤반은 색소먹어요?”

나 “엇... 그제... 아~ 우리반 친구가 사탕을 가져왔거든 그래서 딱 한알씩만 먹으려고, 환경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먹는 건 괜찮다고 하셨잖아...”

### ❖ 사례 2

명익 “선생님! 뭐해요?”

나 “걸레 빨지?”

명익 “근데 왜 물을 그렇게 많이 써요? 물이 다 뒀네!”

나 “아... 알았어, 살살 빨게...”

요즘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잔소리를 하고, 듣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교사들이 사탕먹지 말아라~ 물을 아껴써라~ 라고 탁달하던 소리가 변명의 목소리로 변한 그 사건! 도대체 한미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바야흐로 2002년 7월. 한미어린이집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인력인 교사들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화도 들려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루종일 같이 지내기도 하는 여러 자원봉사자들, 그 중에 한달에 한번 오셔서 환경특강을 들려주시는 심 영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심선생님은 저희반 아이와 동갑인 5살짜리 아들을 둔 환경운동가로 초,중,고교에 환경교육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환경교육내용을 교사들과 상의해서 들려주셨는데 7월 주제가 바로 “유해 색소”였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법도 한 유해색소 이야기를 풀어 나가기위해 알록달록한 껌과 사탕, 화려한 색깔의 음료수, 생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맛있어 보이는 먹을거리들을 가져주러 오신 것으로 착각한 우리 아이들은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성질급한 녀석들은 테이블 주위로 다가가 손을 뻗치려고도 했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한마디,

“여러분, 이 앞에 맛있는 음료수와 사탕, 껌이 있지요? 그런데 이 열의 생수를 보세요. 맛이 있어 보여요?”

“(모두 입을 모아) 아니요!”

“그래요, 공장의 아저씨들이 이렇게 깨끗한 물만 담으면 잘 팔리지 않으니까 몸에 나쁜 설탕과 알록달록한 색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색소를 먹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신경질을 많이 내게 되요. 그리고 머리가 나빠지게 된대요...”

때론 그 동안 아무 생각없이 사먹던 맛있는 탄산음료의 색을 생각해보니 모두 색소가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색(?)이 아니던가! 듣고 있던 제 마음도 씩씩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술에 속아서 몸이 나빠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먹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나봅니다. 환경특강을 들은 후로 부터는 사탕 한알을 주면,

“오늘 사탕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먹으면 안되지요?” 라고 하고 “어제 엄마가 과일쥬스로 얼음과자만들어 줬다요!”라며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이야기를 귀기울여 잘 듣는 송기원이란 친구가 있거든요. 평소에도 교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애길 잘 하는 편인데 환경특강이 주는 감동이 남달랐나봐요. 집에서도 댄날 색소이야길 해서 어머니가 카페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황색 제 3, 4호의 광중”

요즘 송기원의 어휘중 빈출도 1위의 단어는 바로 황색색소 제 3호와 4호입니다. 사탕,음료수,과자,아이스크림에 그 색소가 들어있고, 그것을 먹으면 감기(?)에 걸리며 신경질을 내게 된다고, 먹고 싶은 유혹과 황색색소의 공포라는 이중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댄 남자아이가 원하는 분홍색 풍선껌을 거절하기까지 한 송기원.

물론 거절의 이유는 황색색소 제 3호였습니다.

수퍼에 가기만 하면, 송기원은 먹고 싶은 품목을 지명하며 황색색소가 들어있는지를 물어대고, 기원의 누나는 일일이 봉지 뒷면을 읽으며, 황색색소나 식용색소가 들었다고 설명하는 일이 계속되고,

몇 주를 그렇게 괴로와하더니(왜냐하면 그 색소라는 놈이 들었다는 그 먹을 것들이 모두 송기원이 대단히 좋아하는 군것질거리거든요), 급기야는 본인이 먹기 싫은 음식들, 예컨대 과,버섯,당근,토마토 주스 등에 황색색소가 들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식사때마다 황색색소를 둘러싼 난상토론, 아니 밥상토론이 벌어지는 요즘 저희집 풍경...

혹시 다른 친구들도 황색색소 제 3,4호로 고민하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덕분에 군것질거리를 바꿀 수 있어 저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기원이 워낙 단 것과 사탕,껌,탄산음료를 좋아해서 안그래도 걱정이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경계를 하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는 걸 지켜보는 일도 쉽지는 않네요. 차차 나아지겠지요?)

이후에도 기원은 하원할 때 마중 나온 친구 아버지에게도

“황색색소가 든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나쁜 아저씨”라며 인사도 거부하는 놀라운(?)모습을 보이게까지 했습니다. 기원이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황색색소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여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황색색소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8월의 특강주제는 물오염방지, 물질악이었는데 생활단원도 “물”이고 수재까지 나서 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의 입에서는 “물은 아껴써야 되는 거지요~ 물속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지요~”하는 이야기가 줄줄 나오고 화장실에선 “물 아껴써!” 하면서 물을 잠그느라 열친구와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킬킬킬... 재미있으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에 바른 생각이 들어간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꾸준히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나봅니다.

물질악 특강을 하면서 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삼푸나 비누를 많이 쓰면 엄마, 아빠에게 꼭 말하세요. 엄마, 아빠가 물을 이렇게 낭비하면 우리가 자라서 쓸 물이 없어요. 우리는 마실 물도 없을지 몰라요. 엄마, 아빠! 깨끗한 자연을 우리에게 물려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우리가 되도록 저도 한마디~”

환경지킴이가 된 한미어린이들아! 더 열심히 잔소리하렴,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바로 되게!

###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추천하시고자 하는 회원, 자료회원 여러분은 받으실 분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중앙 사무국에 알려주십시오.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축구와 월드컵 프로젝트

- 대상 : 만 5세반
- 기간 : 2002년 5월 27일~6월 22일(5주간)

### ❖ 준비단계

#### 1. 주제 선정

‘월드컵’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시청각 매체를 통해 아이들이 월드컵에 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흥미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이에 교사는 월드컵에 대해 좀더 쉽게 접근하고자 좀더 넓은 의미로서 ‘축구와 월드컵’이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교사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발달단계에 맞는 활동들을 제공한다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기대효과도 크리라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 2. 환경 구성

##### (1) 게시판 전시

- 축구와 관련된 신문기사
- 월드컵 홍보물(마스코트, 엠블럼, 포스터)
- 각 도시별 축구경기장 사진자료
- 축구대표팀 사진

##### (2) 실물자료

축구공, 축구화, 축구 유니폼, 붉은 악마 유니폼, 무릎 보호대

#### 3.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정보

##### (1) 현장 견학

- 수원 월드컵 경기장

##### (2) 참고자료

- 축구 전문 잡지
- 시에서 제작한 월드컵 홍보자료
- 관련 서적 : 최소자의(2002), 프로젝트 접근법의 사례 연구.

### (3) 인터넷 관련 사이트

| 번호 | 인터넷 주소                    | 내용                      |
|----|---------------------------|-------------------------|
| 1  | Kr.encycl.yahoo.com       | 월드컵에 대한 전체 설명           |
| 2  | www.worldcup.co.kr        | 응원가 감상                  |
| 3  | www.2002Worldcupkorea.org | 경기장 소개, 마스코트 설명         |
| 4  | 2002Worldcup-shoo.com     | 축구공의 유래                 |
| 5  | kr.sports.yahoo.com       | 축구 관련 사진 소개             |
| 6  | www.adi#.com              | 월드컵 공식구, 시뮬레이션 게임(슛-골인) |

## ❖ 프로젝트의 전개

### 1. 활동의 실제

#### ◆ 신체활동

| 활동명  | 나처럼 해봐요                                                                                                                                                                                                                                                                                                                  |
|------|--------------------------------------------------------------------------------------------------------------------------------------------------------------------------------------------------------------------------------------------------------------------------------------------------------------------------|
| 활동자료 | 신문에 나오는 다양한 축구 선수 사진, 음물테이프(나처럼 해봐요), 카세트                                                                                                                                                                                                                                                                                |
| 활동목표 | 사진을 보고 다양한 움직임을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해 본다.                                                                                                                                                                                                                                                                                         |
| 활동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에 나오는 축구선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br/>T:본적이 있니?누굴까?</li> <li>- 웃는 장면,세레머니 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모습인지 이야기나눈다.<br/>T:표정은 어머니? 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li> <li>- '나처럼 해봐요' 음악을 틀어놓고 교사가 제시하는 사진을 흉내내본다.</li> <li>- 몇 명씩 나와서 동작을 흉내내본다.</li> <li>- 회상하기<br/>T:오늘 어떤 활동을 해보았니?<br/>T:어떤 동작이 재미있었니?</li> </ul> |



#### ◆ 수, 과학활동

| 활동명  | 축구화와 실내화 비교하기                                                                                                                                                                                                                          |
|------|----------------------------------------------------------------------------------------------------------------------------------------------------------------------------------------------------------------------------------------|
| 활동자료 | 축구화와 실내화(실물자료), 활동지, 돋보기                                                                                                                                                                                                               |
| 활동목표 | 축구화와 실내화를 비교함으로써 축구화의 특징을 이해한다.<br>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능력을 기른다.                                                                                                                                                                               |
| 활동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 한 영역에 실내화와 축구화를 놓아두고 돋보기로 탐색해본다.</li> <li>- 3-4 명씩 소그룹으로 모여 실내화와 축구화의 용도에 대해 이야기나눈다.</li> <li>- 바닥의 모양, 색깔, 신었을때의 기분등을 비교해본다.</li> <li>- 두 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벤다이어그램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li> </ul> |



#### ◆ 언어활동

| 활동명  | 우리반의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
|------|------------------------------------------------------------------------------------------------------------------------------------------------------------------------------------------------------------------------------------------------------------------------------------------------------------------------------------------------------------------------------------------------------------------------------|
| 활동자료 | 레드카드와 옐로우 카드, 축구규칙을 적은 종이, 활동지                                                                                                                                                                                                                                                                                                                                                                                               |
| 활동목표 | 축구경기의 규칙을 이해한다.<br>교실에서 옐로우 카드와 레드카드를 적용해본다.                                                                                                                                                                                                                                                                                                                                                                                 |
| 활동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역할방에 레드카드와 옐로우 카드를 놓아준다.<br/>T:오늘 소꿉방에서 레드, 옐로우 카드를 가지고 논 친구가 있었니?<br/>T:어떤 놀이를 하였니?</li> <li>-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레드카드를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li> <li>- 활동지를 소개한다.<br/>T:너희들은 친구가 어떻게 할 때 속상한 기분이 드니?<br/>T:우리반에 옐로우 카드, 레드카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br/>(어떤 상황에서 카드를 적용할지 여러 의견을 들어본다.)</li> <li>- 활동지를 나눠주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보도록 한다.</li> <li>- 재일 많이 나온 의견을 모아 큰 종이에 적어 역할방에 제시한다.</li> </ul> |



#### ◆ 음률활동

|      |                                                                                                                                                                                                                  |
|------|------------------------------------------------------------------------------------------------------------------------------------------------------------------------------------------------------------------|
| 활동명  | 옹원가 만들기                                                                                                                                                                                                          |
| 활동자료 | 개사할 동요(씨앗), 피아노, 칠판, 보드마카                                                                                                                                                                                        |
| 활동목표 | 아이들에게 익숙한 노래로 옹원가를 만들어 본다.<br>공동으로 노래를 만들어 봄으로써 협동심을 기른다.                                                                                                                                                        |
| 활동방법 | — 인터넷으로 봄은 악마의 사진이나 옹원하는 모습을 관찰한다.<br>— 미니월드컵 경기때 어떤말로 옹원하면 힘이 날지 이야기해본다.<br>— 교사가 선정한 노래를 보여준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요)<br>— 동요대신 우리반의 옹원가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br>(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옹원가 가사를 완성한다.)<br>— 완성된 옹원가를 큰종이에 적은후 다같이 불러본다. |

#### ◆ 미술활동

|      |                                                                                                                                                                                         |
|------|-----------------------------------------------------------------------------------------------------------------------------------------------------------------------------------------|
| 활동명  | 축구복 만들기                                                                                                                                                                                 |
| 활동자료 | 유성물감, 흰티, 전사염료, 연필                                                                                                                                                                      |
| 활동목표 | 미니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br>축구복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해 본다.                                                                                                                                               |
| 활동방법 | (미니월드컵에서 축구선수 역할을 맡은 유아들과 활동한다.)<br>— 축구 선수들의 축구복을 살펴본다.<br>— 전사염료를 이용해 흰티를 염색한다.<br>— 축구복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생각해서 연필로 그린후 유성물감으로 채색한다.<br>— 물감이 다 마르면 등 뒤에 자기번호를 쓴다.<br>— 미니 월드컵때 입고 축구시합을 한다. |



2. 프로젝트의 종결- 미니월드컵 개최(일사: 2002. 6. 25)



#### 교육토론

### 21세기 우리의 보육철학은 무엇인가?

정리 · 본회 교육부

우리회는 제6차 정기총회에서 우리회의 3개년 계획 속에서 2002년과 2003년 내에 우리회의 보육이념을 정리하고, 2004년 우리회의 보육이념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우리회의 보육이념 정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강조하고 정리해야 할 보육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리하고, 우리회의 보육철학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이번 수련회의 교육토론은 보육철학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모아보고, 부담 없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자리로 마련하였다. 토론을 통해 나온 회원들의 생각은 교육위원회를 통해 정리되고 구체화 될 것이다.

교육토론은 수련회 첫날 약 한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회원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들어내고자 별집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회원들은 5-6인씩 조를 이루어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과 문장으로 표현하였으며 조별로 나온 의견들을 분류하고 묶어서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나타난 회원들의 의견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이었다. 모든 조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며 조별 발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회원들이 쓴 짧은 글속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반편견 다문화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사의 태도에 대한 아동인권적 접근  
■ 교사와 아이의 권리찾기,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평등한 보육환경을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통합보육,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한 필요성은 공동체교육의 내용에서도 언급된다.

[환경·생태·자연친화] 이 주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교육에서 시작하여, 생명존중교육의 필요성,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지내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 더 나아가서는 자연의 변화에 맞춘 생태적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자연인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지

니도록 키워야한다는 의견까지 그 깊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 [공동체교육]은 우리 회의 교육 목표 속에서 중요하게 자리잡은 내용이며 현재까지 회원들의 가슴속에 가장 필요한 교육철학으로 남아있다. 공동체교육에 대하여 회원들의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어른과 아이가 같은 인격체'임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아이들은 이를 위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배워야한다. 공동체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 아이에게만' 관심을 갖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동체교육을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자아 존중감, 타인에 대한 예절 등이 거론되었다. 공동체교육은 더 큰 의미로 인류애까지를 포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우리 문화를 아는 교육]은 우리 회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야이다. 회원들은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를 체득하여 즐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민족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아는 것, 전래놀이문화를 살리는 것, 우리 글과 말을 바로 사용하는 것 등이다. 우리의 문화가 공동체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평화통일교육]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북한에 대해 바로 알기, 통일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진행하여야한다는 의견과 통일의 개념을 확장한 평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통일에 대한 교사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야하며, 우리 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도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 [양성평등교육]올바른 성과 평등을 배워야 하며 이는 어린이집과 가정 모든 곳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다.

● 우리 회원들이 아이들에 대한 바람은[자주적 인간]으로 자라는 것이었다.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리는 자발성이야말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나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한 덕목이었다.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성과 삶의 방식을 찾아가기 위해 교사들은 아이의 의지가 발현되도록 도와야하며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한다. 아이가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것은 공동체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회원들은 우리가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생활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생활속에서 습득하여 자연스럽게 내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놀이]에 빠져 들어야하며 스스로 놀 줄 아는 아이로 자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생각은 90년대 중반 우리가 정리한 교육목표 "좋은 놀이는 노동의 준비이다"라는 생각과 맥이 닿아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노동의 가치] 즉, 노동하는 부모에 대한 존중과 생산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이밖에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보육교사와 아이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보육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를 포함한 보육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보육의 성격]보육의 역사가 짧은 현재 보육시설은 유아교육기관과의 차별화된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보육시설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독자적 형태의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원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지만 우리 회가 이제까지 일관성있게 지향해 온 교육철학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의 발달수준과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여야하는 공동체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이들이 현재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는 의견과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교육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제기 되기도 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의 보육철학을 정리해 내고 현장에서 구체화해나가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 과정은 연구자들의 몫이 아닌 우리 회원들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작업이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아름답게 자란 우리 아이들로 나타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해맑은 세상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인 할머니(별명)의 수련회 참가기

안미경 · 부산, 해맑은 세상 어린이집

해맑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모두 '할머니'라고 답변을 한다. 딸년하나 있는 게 어린이집인지 뭔지 한다고 나를 이렇게 부러먹는다며 두덜두덜 거리면서도 해줄 거 다 해 주는 할머니(안미경씨의 친정엄마이며 성함은 이은식입니다.).

새벽 6시 30분에 어린이집 문을 열어 아이들이 하룻 동안 먹을 물을 끓이고 보육교사들이 하기 힘든 반찬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개원 시간 전에 와야 되는 원아들을 맞이해 놓으면 정식 개원 시간인 8시, 개원시간이 되면 노련한 운전승씨로 아이들을 데리러 봉고를 들고 가신다. 그리고 12개월 미만인 영아 두 명과 하루종일 씨름을 하며 보내신다.

병원에 가야 할 아이가 있으면 데리고 병원 다녀오시고 시장 보러 다니시고... 이것저것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린이집에서 가장 바쁜 보육교사이시다. 이런 할머니님 보육교사회의 행사에 자주 등장하시는 것은 딸년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보육교사들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이시란다. 또한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이일을 하는 딸년이 가는 모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해서라는데...

출산관계로 수련회에 참석치 못한 딸년 대신에 할머니께서 먼 변산 까지 가시게 되셨다.

원래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시는 성격이시라 어린이집에서만 생활하니 갑갑하기도 하고 친구분들도 멀리 계시고 하니 변산의 경치라도 구경할 겸 나섰다고 하신다.

수련회를 마치고 일요일 늦게 도착하신 할머니, 함께 다녀온 회원들과 딸년 집에 모여서는 수련회 다녀온 얘기를 온근슬쩍 꺼내시는데, 얼굴엔 특특히 재미를 보셨는지 받아온 한보회 단체티셔츠와 추적놀이에서 패지띠들팀이 잘 해서 받았다는 전자계산기를 온근히 자랑하시며 한 말씀 하신다. "아이구, 물 좋은 서울에서 왔다는 보육교사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같이 살이 쪼서 허벅지가 이만하더라야(엄마 허벅지를 짚으며), 어쩔 그렇게도 얼굴도 이쁜 교사가 없냐, 그래도 부산에서 올라간 교사들이 제일 낫더라야, 힘들어서 몸이 막 붓나봐~"

모두들 "하하하" 웃고 말았다.

덧붙여 하시는 말씀 "나도 많고 시집도 못한 처녀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근데 어쩔 그리도 아이들을 잘 파악하는지 어디 알아서도 쓸데없는 얘기 안하고 자기가 돌보는 아이들 얘기 밖에 안해~(서울말투이심). 아마 애들 돌본다고 화장도 안하고 수수한가봐, 모두 사랑받겠드마는 왜 시집을 못 갔는지. 췌췌"

정말 할머니다우신 걱정 어린 말씀이었다. 경너씨에게서 원고청탁을 받았다고 글을 쓰겠냐고 여쭙니,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글을 쓰냐며 거절을 하셔서 인터뷰형식으로 여쭙어서 글을 옮기기로 하였다. 할머니는 거기에 모인 보육교사들은 전짜 보육교사들 같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늙은이로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았으며 딸년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 딸보다 더 좋은

말들을 알게 되어서 더더욱 좋으셨단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땀에 땀날 시달리는데 자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맘껏 못 노는 것 같아 불쌍해 보이다란다.

이 타임에서 딸년은 한마디 붙인다. "그럼, 엄만 내 사정 아니까 나 회의 갈 때나 수련회 갈 때 꼭 우리 지영(갓 태어난 딸년의 아들)이 봐 주겠네~ 고마워~" 아양을 떨니



"왜 내가 보냐? 니 남편이 봐야지~" 그러시면서 넌지시 웃으신다. 아마 이후엔 엄마 덕을 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딸년들은 다 도둑 년들이란 말이 새삼 느껴지신단다.

한번의 수련회가 엄마의 눈과 귀, 생각까지 바꿔 놓은 것 같아 딸년도 흐뭇하다.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엄마가 이해해 주시는 걸 보니 한결 마음이 가볍다. 이제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니라 같은 보육교사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나 또한 더없이 기쁘다. 엄마, 고마워요~ 해맑은 세상 할머니! 화이팅!!

## 그날 그곳에선 무슨일이...

류신정 · 인천, 예술어린이집

### 기억 1.

하마(고정미)선생님의 신명은 배에서 나온다?

수련회밤에 길놀이를 한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그날의 흥겨움과 회원들의 하나됨을...

그 날 우리는 모두가 신명나서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며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 날 길놀이의 상쇠가 임신부라면 믿을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 아마 인천지부회원을 맡고 있는 그 사실을 알았던 회원들은 없었을 것이라 본다. 사실 난 그 날 당연히 하마선생님은 임신부니까 상쇠를 맡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마선생님은 너무나 쉽게(?) 상쇠를 맡아 우리를 하나로 모아 어울리게 만들었다. 하마선생님을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 때 그 신명이 배에서 나온 거 맞죠?"

### 기억 2.

"몸보신"의 추적놀이

처음 추적놀이를 시작할 때 '이왕이면 1등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팀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등수는 내 기억속에서 지워졌다. 우리들은 뽕피와 닭띠가 모였다는 이유로 팀이름을 '뽕보신'이라 정했다. 이렇게 웃기고 영성한 이름이 과연 1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는가! 그렇지만 '뽕보신'이라 칭하고부터 등수와 상관없이 아주 재미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콕콕! 들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팀구호 '먹자! 먹자! 오래살자!'를 외치며 추적놀이를 시작했다. 쓰레기도 즐기고, 아이들 운동회처럼 밀가루 사탕도 입에 물며 우리는 승부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갔다. 우리팀의 하이라이트는 '필사의 탈출'(원래의 이름은 무엇인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불렀다. 골레탈출이랍니다. 편집주)이었다. 사실 내 몸무게가 쪼끔 많이(?) 나가 속으로 나 때문에 조금은 힘들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너무나 쉽게(?) 탈출에 성공시켰다. 그 때 내 발에 깔리신 선생님의 허리는 괜찮으세요?...

사실 수련회의 모든 것이 즐거웠던 것은 아니다. 살충제에 죽지 않는 파리와 싸워야 했고, 바다 속에서 개해엄도 못 해보고(거리가 멀어 일찍 출발해야 했음) 돌아오는 차안에선 그 날 먹은 것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련회밤의 모닥불 좋았고, 선배회원들과 신입회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좋았고, 잠자리의 수다와 돌아오는 차안에서의 수다도 좋았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모두가 함께였다는 것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날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이 수련회는 성공한 것이 아닐까 한다. 수련회를 함께 하며 나는 '나도 보육교사회 회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느낌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것으로 이 수련회는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부담없는 수련회!!

오랫만에 장거리여행에 바다여행이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면서 기대가 되었다. 꼭 반드시 가야지!!

그런데 우리지부는 장소가 정해지자 멀리 수련회를 가는 것이 처음이라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처음엔 쉽게 해결되는가 싶더니 문제가 생겨서 몇 명이 따로 가야했다. 준비할 것은 지부발표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너무 늦게 각본이 나와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한번 맞추고 예전처럼 또다시 우리의 뛰어난 즉흥적 연기력을 보여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편지를 써서 가야한다니 갑자기 부담감이 느껴졌다.

여행가는 전날밤처럼 뒤척뒤척 잠을 설치고 출발한 즐거운 수련회. 하지만 갔다오자마자 있을 토론으로 읽어야 할 책이 있어 가는 버스 속에서 지루한 책을 읽느라고 머리가 아팠다. 그러다 잠시 서해안 휴게소에서 쉬고 다시 출발하는 버스 속에서 고개 돌려 창밖을 보니 손에 잡힐듯한 수평선, 뛰어내려가 밟고 싶은 갯벌, 푸른 내음이 물어나는 듯한 산과 들,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보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렇게 기분 좋게 먼저 도착하여 시간의 여유가 있게 된 우리는 부산지부와 풀았으나 알차게 내소사를 다녀올 수 있었다.

넉넉한 저녁을 먹으면서 수련회 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련회만 오면 하루 두 끼 먹던 식사를 3끼 꼬박꼬박 챙겨먹고 한그릇 먹던 밥 두그릇 먹게 되어 더 건강해지는데 이번은 '자제하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결심했으나 도무지아미타불이었다. 첫 식사 저녁부터 과식이 되면서 그냥 바로 나의 결심은 사라졌다.

후발대로 오는 우리 지부사람들이 도착하지 못한 채 먼저 온 사람들만 신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몸을 풀었다. 조금은 아쉬웠으나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가야 했다. 이어진 교육철학토론! 무거울 듯 했는데 시간내 전지를 돌리면서 적어야하고 나눠서 분석 분리해야 하느라 제대로 생각을 나누는 토론이 되기에는 한계가 느껴졌다. 또한 함께한 교사들과도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워 하며 끝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이 나는 이름표 뒤의 서명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인사를 나누었다. 나중엔 재미있어서 내것을 다 하고도 서명해주며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익히고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파도소리를 배경으로 하고 펼쳐지는 지부발표는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웃음과 놀라움과 흥겨움을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 (경기지부! 다음 수련회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지난밤의 감흥은 아침을 상쾌하게 열었고 나는 부담스런 편지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볍고 즐겁운 마음으로 쓸 수 있었다. '밤새 먹어도 아침은 아침이다' 하며 열심히 먹었더니 에너지들을 쓸 기회가 있었다. 오랫동안 뭉친 양파들과 지력이 넘치는 돼지띠가 하나가 되어 '양치는 돼지' 팀을



억이 되살아나면서 감흥이 느껴지는 듯하다. 내년이 되어야 다시 맛볼 이맛!! 다음 여름수련회가 기다려진다.

탄생시켰다. 우리팀은 이름, 구호, 노래로 팀의 단합된 모습을 확실히 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7지점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2시간이나 소모되었는데도 지루한 줄 정말 몰랐다. 끝내고서야 지치는 감이 생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우승과 상품으로 남겨졌다. 무척 뿌듯 흐뭇했다. 우리지부는 점심 후 잠시 바다에 몸을 담가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돌아와야만 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감흥이 느껴지는 듯하다. 내년이 되어야 다시 맛볼 이맛!! 다음 여름수련회가 기다려진다.

연장소식

4

##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달려온 그 길은, 잘 생각해 보니 바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네요. 처음엔 변산반도 때문에 설레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다 내놓고 만나들이를 하는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긴 여름의 끝에서 날 설레게 하는 것들이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고사포 해수욕장도 절 행복하게 했습니다.

한 밤에 물이 빠진 그 자리를 밟고 나가 보는 게 정말 즐거웠지요. 아이들을 두고 와서 온전히 놀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역시 생각해 보니 어제 종일 달려오면서도 지치지 않게 한 건, 그리고 밤새 행복한 기분에 들떠 노래부르게 한 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인사를 했나요? 멀쩡이 떨어져 있었나요?

우리가 손 맞잡을 시간이 없었는데도 제가 달려온 이유는 '선생님 바로 당신' 이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2002년 8월 24일 부산 참새

안녕하세요 부산 참새 생!

저는 경기지부 수원지회 지연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샘에게 글을!!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수련회에서 샘의 편지를 받은 장본인입니다.

너무 늦게 답변을 해서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늦었지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련회에서 돌아 오는 차속에서 읽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불에 누워 편지를 끄적이다 생각나면 꺼내서 읽어 본답니다.

그리고는 늘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분명 얼굴을 보면 이는 생일텐데... 궁금한 거예요.

샘도 누가 내 편지를 받았을까 궁금하셨죠? 이이가 저 '아닌가' 의 부산 사투리입니다. (편집주)

오늘에서야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저는 이번 가립니다.

겨울 수련회때 만나서 반갑게 인사 나뉘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연장소식

5

## 땀다! 서울지부

김미나 · 서울, 조직부장

서울에서 이 글을 쓰려니 변산 앞바다가 어른어른 거립니다.

사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다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왔거든요.

바다 안개속에서 헤지는 것도 보고.. 달무리진 해변가도 걷고.. 사람들 붙들어 놓고 파도 소리들으며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후우, 그 놈의 잠이 뭔지... 남들은 파리땀에 잠도 못자는데.. 난 파리가 등판에 새까맣게 붙어도 깨지도 않고 잤으니.. (저의 잠은 씩씩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지요.) 이 밤이 가도록 바다노래 부르며 파도소리 즐겼다는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가슴을 찔렀는지..

암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차안에서 여행기분내야 한다며 서울지부준비팀의 아이디어로 나온 추억의 소풍 간식!! 전계란, 감자, 찐계란에 왔다인 사이다, 뽕튀기, 강냉이...

준비할 땐 몰랐는데 먹다보니 무지 많더군요. 왜이리 잠도 못자게 먹여대냐는 선미 샘님 말대로 내년엔 조금만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통달 정도로...)

근데 정작 소풍 기분내야 한다며 이것 저것 먹거리 아이디어 냈던 명신 샘님은 자느라 먹지 못

했으니... (도대체 전날 밤에 뭐 하셨나 무지 궁금하네요)

먹거리 장본다,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떠돌 때, 남은 아이들 혼자 보면서 뒷치닥거리와 조언을 마다 않던 씩씩이의 수연이, 인해 언니도 정말 수고 많았어용~

5시간의 주행에도 끄덕않고 바로 변산 관광에 나서는 회원들을 보며 그 에너지에 놀랐지요. 근데 내소사는 어땠나요? 프로그램 준비만 아니면 쫓아갔을 텐데..

변산 관광 땀에 땀근영 쌤님이 수고 많이 하셨지요. 답사 책 뒤져가며 관광 코스 정하랴, 기사 अच्छ어 씩외하랴, 안내하랴.. 신입회원으로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원을 좋은 곳으로 안내해야하는 중책을 책임감있게 수행한 근영쌤님.. 수고 하셨어요 (참, 마징가 제트 공연도 있었군요. 그것도 수고하셨어요. 역시 대단하더군요. 어느 신입회원들보다도 확실하게 회원들 기억에 남으셨 습니다~)

근데 이곳 저곳 점해둔 곳이 많았는데 시간이 모자라 내소사만 다녀온 게 아쉽군요.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지부 하이라이트는 '지부 장기 자랑'이었습니다.

장기자랑 준비하며 다 죽어가는 얼굴로 긴장하던 황호정 쌤님은 역시 무대 체질이이었지요. 무대 에 올라가면 그리 잘 소화하면서 어찌 그렇게 엄살이 심하셨는지..

명신 쌤님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무대 매너, 몸을 아끼지 않고 바보 교사를 열연한 수연이 쌤님, 호느적거리는 예로 버전을 완벽히 소화한 보경 쌤님, 댄스 파티의 아쉬움을 섹시 춤으로 달래야 했던 인경쌤님, 때아닌 무삽땀에 고생한 지부장님과 근영 쌤님.. 그리고 꼼꼼한 소품 준비의 현정 쌤님... 이 모든 노력이 모여 정말 아름다운 결정판이 태어났었습니다. 지부 역사상 그렇게 열광적이고 예로틱한 시간이 있었단가..

항상 cool하다는 말을 들어온 서울지부가 전국 회원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각인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쉽게 광주가 우승 상금을 차지해 갔지만 (근데 광주의 카드섹션은 정말 멋있었어요) 내년 상 금은 서울지부입니다.

지부 두번째 하이라이트로 파도 소리 들으며 물래(?) 구워먹던 바베큐 파티를 빼놓을 수가 없군 요.

파도소리 들으며 정신없이 구워먹던 삼겹살은 어찌 그리 맛있었는지.. 고기 안먹겠다는 다짐도 무너지고 정신없이 먹었지요.

놀러가면 웅기종기 모여 불피워놓고 구워먹는 삼겹살의 추억을 빼놓을 수 없다며 또한번 먹거 리 아이디어로 승부한 준비팀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낮선 사람에게 거리낌없이 그 비싼 불판 빌려오는 인해 쌤님의 수완에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인해 쌤님 덕분에 정원석 빼지 않아도 되었지요 (원래는 돌 쌓아서 구공탄 넣어 석쇠에 구워먹을 계획이었거든요.)

왕언니로 제일 열심히 고기 굽던 숙자 쌤님의 노래 한자락만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먹느라

정신없이 그만 놓치고 말았네요.

지부장님의 새로운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생일맞아 기분 좋게 취한 진숙 쌤님은 연 신 웃으며 근래 보기드문 귀염성(?)을 맘껏 발휘했지요. 지부장님! 그 모습 또 보고싶어요. 빨리 술 자리 한번 갖자구요.

그리고 오랜만에 지부 모임에 함께 해 열심히 고기 구워주시던 윤정 쌤님도 정말 반가웠습니 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제가 방에서 사회엔트 준비하느라 혼자 남았었거든요. 그때 윤정 쌤님이 늦게 도착하시더라구요. 근데 문을 들어오며 인사하는 윤정 쌤님 얼굴을 보니 왜그리 반갑던지.. 자연의 힘인가.. 아님 나도 모르게 평소 애절하게 그리워(?)했었나??? 암튼 무지 반가웠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수련회 첫날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선배님들과 나눈 이야기.. 자연에서 만나니 또다른 모습의 사람들...

벌써부터 그 밤이 그리워집니다..

## 어린이집의 아동 건강에 관한 Q&A

정리 · 편집부

아래의 내용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사모임'에 참가하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아동의 건강관리 활동을 하는 중에 생기는 질문에 김유호 소아과 전문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본회에서 발간한 보육시설건강교사수첩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편집한 글입니다.

**Q** 요즘 눈병 유행이 심해 살균비누(수수실에서 쓰는)를 사용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요?

**A** 요즘 유행하는 눈병은 바이러스 눈병으로 전염력은 2주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외출 후에는 꼭 손과 얼굴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비누로 씻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균비누의 성분이 눈에 눈에 들어가면 건강상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반 비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나들이 후에는 먼지를 털고 실내로 들어가고 세수를 합니다. 여기서 보육교사가 주의할 것은 눈병 걸린 아이를 씻기고 다른 아이를 바로 씻기면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눈병 걸린 아이를 씻긴 후에는 꼭 먼저 손을 씻은 후 다른 아이들을 세수시킵니다.

**Q** 아이가 변을 보면 피가 나는데 항문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치질이 아닌지요?

**A** 아이들은 거의 치질이 없습니다. 피가 나는 것은 주로 항문열상입니다. 또는 피가 나도 아프지 않은 건 항문보다 더 몸 안쪽에서 피가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소아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의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변 보는 습관은 아이마다 달라서 하루에 3번 보는 아이도 있고 3일에 한 번 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따라 위로 가고 위에서 소장, 소장에서 대장을 거치면 S결장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곳에 모인 음식 찌꺼기의 물기는 장 점막으로 흡수되고, 남은 최종의 찌꺼기가 항문의 힘에 의해 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평상시 어린이의 대변 습관보다 횟수가 줄거나, 변 볼 때 힘들어 하면 변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변이 되지 않은데도 힘들게 보는 수도 있지만 대개 S결장에 모여 있던 변이 물기를 모두 뺏았거 딱딱한 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S결장 주위에는 신경이 모여 있어서 적당한 양의 대변이 차면 장이 늘어나면서 배변감을 느끼게 되고 힘을 주어 변을 내보내게 됩니다. 변비가 있으면 어린이는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고 음식물을 토하기도 합니다. 대개 3일 이상, 어떤 때는 5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변이 항문에 걸려 나오다 마는 경우가 있는데, 변비 때문에 항문 주위가 빨갛게 되거나 찢어져 피가 나서 대변 주위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힘을 주다 보면 항문의 앞쪽에 마치 치질처럼 말랑 말랑한 피부덩어리가 나와 있어 치질이 아닌가 하고 놀래기도 하지만 치질이 아니라 밀려 나온 피부의 덩

어리입니다. 어른들은 대변을 볼 때 아프다는 느낌이 있어도 참고 변을 보지만 어린이들은 아픈 기억이 있으면 며칠이고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항문에 상처가 있거나 항문 주위에 고름(농양)이 있거나 기저귀 발진으로 쓰라리거나 할 경우 아이가 변을 참아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의 모양은 어린이가 먹는 음식의 종류나 배변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유를 주식으로 하거나, 육류를 주식으로 하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을 때 굳은 변을 보고, 또 굳것질을 자주 하거나, 적은 양을 여러 번에 걸쳐 먹으면 대변이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교사는 변비에 걸린 아이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먹는 방식을 기록하고 마지막 변 본 날짜를 기억해 둡니다. 항문 주변에 상처는 없는지, 발진은 돌지 않았는지, 붉은 곳은 없는지 확인하며 과거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아 둡니다.

변비의 치료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주고, 분유를 먹는 양아는 분유를 한스푼 정도 짚게 타 주고 우유를 먹는 어린이는 폐지밀이나 선식을 추가하여 줍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는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을 먹이며 굳것질이나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과즙(특히 사과를 갈아서)을 빈 속에 먹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관장은 5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할 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약도 새로운 음식 습관에 적응하는 동안 보조적으로 사용하므로 관장약이나 변비약을 사용할 때는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5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거나, 변비로 복통이 심하고 구토가 있는 경우, S결장 주변에 신경이 없는 거대결장(대개 7일 이상 변을 보지 않고 배 가죽이 얇아 겉에서 보아도 꿈틀거리는 장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응이 되면 배가 아무리 팽팽해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닙니다.)이나 항문 주위에 농양이 있을 때, 기저귀발진이 쉽게 치료되지 않을 때, 교사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의료가관을 이용합니다.

**Q** 14개월된 남아입니다. 어린이집에 오면 하루 종일 수시로 변을 보려고 시도하나 잘 안됩니다. 먹는 양은 많은 편이고, 집에서 변을 보기 힘들어 해서 부모가 종종 관장약을 이용합니다. 어제 집에서 관장을 하고 오늘 어린이집에 등원했는데 부모님은 관장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럴 경우 관장을 해도 되는지요?

**A** 관장약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아일 경우 배변 습관을 바르게 들여야 하는데 관장을 자주하게 되면 배변습관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가 변비가 심해 관장을 한다해도 관장한 후 5일안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장을 자주하게 되면 배변습관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아이는 항문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이들의 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과 1/4쪽을 성글게 갈아서 아침에 빈 속에 먹이는 것을 5-7일 정도 계속하면 좋습니다.

Q 아이가 농가진에 걸렸을 경우 격리시켜야 하나요?

A 농가진은 여름철이나 초가을까지 잘 나타나며,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이 원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데인 것처럼 큰 수포가 나타나고 이것이 곧 빨간 습윤성의 반(지도 그런 듯하게)으로 변하는 수포성 농가진은 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며 발열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빈도가 드뭅니다.

작은수포와 가피를 주로 만드는 형은 훨씬 흔하게 발생합니다. 주로 노출부인 안면과 팔다리에 나타나나 몸통에 나타나면 초기에 수두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두는 구강 점막도 침범하며 발열 등의 전신 반응이 있어 관심을 갖고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혹 애매할 때는 전신의 피부를 관찰하여 보면 몸통이 아닌 부위에 전형적인 농가진 병변이 나타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가진은 피부의 가장 표층의 세균감염이나, 사구체염, 류마티스 심장질환, 골수염, 폐렴 등의 중독한 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경구 항생제를 10일간 투여하며 국소치료는 과망간산칼리 용액(1:5000)습포가 항생제 연고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전염력이 강해서 어린이들의 손 발을 깨끗이 씻기고 손으로 긁지 못하게 주의를 주지만 안되는 경우는 거즈로 손이 안닿게 밀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안닿게 하면 굳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나면 땀을 많이 흘려 감기에 걸립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A 우선 바깥온도와 안의 온도는 5도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낮잠자고 일어나서는 한 방향의 창문만 열어 환기하도록 합니다. 감기는 잘 때 땀을 많이 흘려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일어나면서 땀이 식어서 걸립니다. 그러므로 낮잠에서 일어나면 새옷을 갈아입히거나 일어나자마자 바로 온도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또 낮잠시 베개를 베는 것은 아동의 개인 수면 습관이므로 꼭 베개를 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는 상체를 높여야 하므로 베개를 베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달리 빈혈이 있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인 경우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아를 엎어서 재우는 것은 단단한 매트에서 재워야 합니다. 폭신한 자리에서 엎어 놓으면 질식사 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토하는 영아는 먹자마자 바로 눕히지 말고 30도 정도의 경사로 기대어 눕게 합니다.

Q 아이가 넘어져서 입을 다쳤을 경우 치아가 다쳤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어떤 종류의 상처든 우선 피가 나면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대고 2-3분 동안 누르면 대개의 출혈은 멈춥니다. 출혈이 멈추면 천천히 잇몸을 살펴보세요. 잇몸의 색깔이 변하면 이가 다친 것이므로 치과에 가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 소독은 면봉에 포타딘을 묻혀 상처에 딱 찍기만 합니다. 또는

침으로 인해 자연 소독이 되므로 별도의 소독약을 바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하므로 교사가 먼저 놀라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확인 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지 확인 후 할 수 없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Q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왜 두통이 생기는 걸까요?

A 머리는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피부(두피)와 그 밑에 단단한 뼈(두개골)와 그 밑에 뇌를 싸고 있는 막과 뇌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리의 뼈 속으로 척추를 따라 척수가 영치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역할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온갖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여 관리하는 것이므로 두통의 원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두통만으로 원인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머리로 가는 피의 양에 변화가 있거나, 머리 속에 염증이 생겼거나, 머리 속의 구조물이 팽창되는 경우 흔히 나타나고, 머리와 가까운 눈, 코, 귀의 문제로 인하여 두통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두통과 함께 원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지만 주로 두통만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두통이 있으면 관심이 줄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음식을 먹으려하지 않고 한숨을 자주 쉬며 잠을 많이 잡니다.

교사는 머리가 아프다는 어린이가 주로 언제 아프다고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지, 머리의 어느 부위를 아파하는지, 두통과 함께 다른 증상(열, 구토, 복통, 경기... 등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력은 괜찮은지, 귀가 아프다고 하는지, 축농증이 있었는지, 가정환경은 원만한지, 아이들과 관계는 좋은지를 관찰합니다. 특히 특정 부위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경우 모르는 사이에 부딪치거나 상처가 났는지 머리카락을 들추며 살피고 만져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꼭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검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시력 때문인 경우에는 안경으로 시력을 교정하면 두통이 사라지고 축농증인 경우는 아침이나 오후로 갈수록 두통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한 두통인 경우 즐거운 놀이를 하면 증상이 줄고 긴장을 많이 하며 생기는 긴장성 두통(신경성)인 경우 오후로 갈수록 심하며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없어집니다. 가정환경에서 오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활발하게 지내다가 집에서는 두통을 호소합니다. 관심을 끌려는 어린이는 특정한 선생님을 보면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개 검사로는 병적인 두통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혈을 포함한 혈액 검사, 축농증을 확인하기 위한 부비동x선 촬영, 난시를 확인하기 위한 시력 검사, 두개골의 이상을 보기 위한 두개골 촬영, 경련성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뇌파 검사(EEG), 머리 속의 신생물을 확인하기 위한 뇌컴퓨터 단층 촬영(CT) 등등을 하게 됩니다.

## 보육과의 주정미 과장을 만나보았습니다.

항상 회원들을 소개하는 이 코너에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인물 탐방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신설된 보육과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정미 과장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럼, 주정미 과장님과 보육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보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보육과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육업무가 다른 아동 복지업무와 함께 다루어지면서 복지부 안에서도 충분히 고민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육과의 신설로 보육사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보육과 신설의 의의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이야기 하신다면?

10년 동안의 보육사업은 분명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내용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보육과가 신설된 것은 보육현장에서 보육만을 전담하는 체제에 대한 많은 요구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보육과 신설은 보육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체제가 만들어진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보육과는 보육에 관한 법령에서부터 세세한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총 망라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보육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숨은 노력의 주체인 보육사업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 저희도 또한 앞으로의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밀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예산을 확충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보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은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시설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용자를 제공하는 등 양적 성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영아 또는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방과후 보육 등과 같은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수보육서비스 제공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시설 평가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

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보육교사가 전문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재직중인 보육교사들의 정기적인 재교육을 법제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예산과 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가는 데 있어 복지부가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과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정책을 제대로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그리고 보육수요자 등 보육현장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학계,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보육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육관련 학계·단체와 여성계 등의 의견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업무도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시설 운영자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닌 사회복지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공무원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도 지금 업무를 하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앞으로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공무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시설 종사자와는 요구되는 전문성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업무를 비롯한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국민의 복지욕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요구와는 괴리된 구태의연한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지요.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끝으로 과장님도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입장에서 한국의 보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불편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좀더 다양하고 질적으로 더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고, 더 먼 미래로 보자면 우리 딸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부모들이 웃으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였으면 합니다.

## 씩씩이 아이들의 이야기

김수연 · 서울, 씹씩이어린이집

### 01 민주의 신비한 경험 이상한 일도 다있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소풍! 용기종기 둘러앉아 맛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민주도 엄마가 싸준 김밥에 미에로XXX 음료수를 한모금 먹고 있었다.

민주: (뜬금없이 미에로XXX병을 이모 코 앞에 들이대며) 이모! 단무지가 들어있어요.

이모: (민주가 내민 병속에는 입안의 잔여물(?)과 함께 단무지가 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음~ 그러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윽고 민주도 또 한번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민주: (자기가 먹던 음료수병을 무심코 바라보다니 깜짝 놀라며) 이모! 없어졌어요!! 이모!

푸하하하 (정말 이상도 했겠다!!)

### 02 현도 엄마는 못 말려!

비오는 날 승현이는 우비를 입고 오고, 현도는 엄마 등 뒤의 캐리어에 타고 씹씩이에 도착했다.

허겁지겁 현도엄마는 승현이 우비를 벗기고 신발을 쟁겨넣고 "사랑해 승현아! 재밌게 놀아" 하며 부라부라 문을 나서는 것이었다.

이모: (현도를 등에 태운 채 문을 나서기에) 현도는 어디 데리고 가실 건가 보죠?

현도엄마: (깜짝 놀라며) 아 참! 현도 데리고 갈 뻔 했네!!

이모: 파당!! (현도엄마! 잊어버리실 걸 잊어버리셔야죠!)

### 03 아주 틀린답은 아니네 그러~~

여름달살이 아침 산책길에 일 나가시는 농부할아버지를 만났다.

이모: 애들아~ 농부할아버지시다, 인사해야지.

아이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모: (농작물과 발작물을 떠올리며) 애들아, 할아버지 뭐 하러 가시게?

진성: (눈을 동그렇게 뜨더니 알겠다는 듯이) 농부하러요

이모: ㅋㅋㅋㅋ!!

### 04 놀라운 일리바이 내 잘못 아니야!!!

일곱살 아이들이 상차리기를 돕고 있는 식사시간!

평소 힘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종현이와 승현이가 짝이 되어 상을 나르고 있었다.

이모 : 오늘은 상차라는 게 굉장히 빠르네!

이모의 말에 아이들끼리 상나르기 경쟁이 붙었다. 거기에 질세라 뛰다시피 상을 나르던 종현이가 그만 바쁜 마음에 상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자 슬란이 손에서도 상이 미끄러지고 결국 상이 뒤집어지고야 말았다.

종현 : (슬란이의 책망하는 눈길을 느끼며) 야! 상이 잘려구한다. 풀릴나봐.

슬란 : (당황) 허걱??

## 05 각본없는 드라마!!

오전시간! 씩씩이 아이들 모두는 신봉초등학교로 놀러가기위해 학교 담장 옆을 짝꿍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현성이는 송현이와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뒤를 수연이모가 종모를 안고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현성이 길을 갈다가 그만 넘어졌다. 부리나케 가보니 현성이 길바닥에 납작 엎어져 있었다. 뼈저렸던 것이었다.

이모 : (웃음을 참으며) 현성아 뭐해? 왜 누워있어? 졸려?

현성 : (슬쩍 이모를 쳐다보더니 무안한 듯 눈을 비비며) 네 졸려요!

이모 : 졸리면 씩씩이에 가서 자아지!

현성 : (무슨일 있었냐는 듯이 부리나케 일어서더니) 네-

이모 : 푸하하!!

## 06 정빈이의 첫 경험!

아이들 점심 다 먹고, 이모들도 겨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정빈(3살)이가 이모들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애교한번 부리고 두부반찬 한번 얻어먹고 뒤돌아가는데 걷는 꼴이 엉긋작거리는게 통뽀짝 입은 꼴이었다. 쉬가리기와 웅가리 혼란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반바지 만 입고 있어서 엉덩이를 살펴보니 별 이상이 없기에 이모들은 안심하고 밥을 먹고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아이들의 긴급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 일동 : 이모! 정빈이 똥똥했어요.

수연이모가 밥숟가락 내동댕이치고 정신없이 화장으로 출동해보니 아이들은 일제히 정빈이 주변을 둘러싸고 정빈이의 웅가냄새를 맡으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상 위에 서있는 정빈이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애들 주먹만한 웅가가 툭 떨어져있었다.

수연이모 : (아이들을 진정시키야겠다는 생각에) 애들아! 똥한 거 치웁봐!

종현 : (진지하게) 상에다 똥한 건 치웁봐요

수연이모 : (앗! 맞는 말이네)!!!!????

## 동자꽃반 이야기

양보영 · 서울, 동근나라어린이집

동자꽃반이 드디어 다시 뭉쳤다. 연수, 연지, 연미를 비롯 동민이까지 100%로 출석이다. 오랜만에 북적북적, 이제 다시 시작이군!! 연신 뛰고 달리며 소리 지르는 동민이. 이에 질세라 '누가 누가 소리 더 잘지르냐' 내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저마다 핏대를 세워가며 얼굴이 시뻘겋해질때까지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놀이가 그렇게도 재미있을까! 아주 행복한 함박웃음들이라 어떻게 말려볼 수도 없다. 얼굴 마주보며 '깔깔, 킁킁!

놀잇감을 하나씩 손에 든 친구들!

나무가지를, 전화기를, 숟가락을 들고는 모두들 귀에 대고 '여보세요 어찌구 저찌구...' 동자꽃반의 제일 큰 언니 지호부터 막내 창열이까지 어쩔... 동자꽃반 친구들이 이젠 모두 함께 하기로 단합을 했다? '선생님, 엄마예요!' 하고 수화기를 넘겨주기에 한참 떠돌고 나면 또 다음 친구가 전화를 바꿔주며 '선생님! 할머니예요!' 애구애구-그날 난 하루종일 전화받느라 목이 다 아팠다.

모두들 쉬하고 낮잠 자리 들어가는 시간.

방에 들어와 나란히 누운 동민 원진이! 지들끼리 소근소근하며 진지하기에 뭐하나 들여다보니 동민이 열심히 새콤달콤 하나를 까고 있지 않는가!

'어쭈-딱 걸렸어!!' 배경인 즉, 원진이가 서랍속에 있던 새콤이를 동민이에게 하나 준 모양

인데 거기까진 좋아. 문제는 원진이가 선생님 말에 깜짝 놀라 이불 속에 새콤이를 숨기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썸-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군! 근데 난 조금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

가람이와 지호는 어느새 역할놀이를 즐긴다. '지호야 엄마한테 와봐' '엄마 이것 봐요, 예쁘지요.' 그렇게 놀기에 안심하고 돌아서면 그만 터져나오는 지호의 울음소리! '뭐야? 또 왜 싸운거니, 금방? 못 말려~'

아침 등원길 엄마와 헤어질 때 잠깐 양 울고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친구들과 잘도 뛰노는 우현이 역시 효자여. 엄마 서운할까봐 애교는 또 얼마나 많은지.

친구들이 선생님 몰래 말썽을 부리고 있노라면 선생님께 와서는 꼭 얼굴을 두들기며 '어.....어.....' 장황하게 설명해주고픈 마음은 알겠는데.....

'어, 우현아 알았어 그랬어, 고마워' 웃기도 잘하고 밥도 잘먹고 이젠 낮잠까지 잘자고 일어나는 우현이 마냥 예쁘고 고맙지 뭐.

손에 손을 잡고 달팽이 집을 자연스레 만드는데 하면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나 여기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로 대답하는 모습까지.

더욱 신기한건 연미와 창열이까지도 형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쁘게 잘한다는 것이다.

우리 동자꽃반 친구들 이젠 진짜 많이 컸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이 그런 시기란건 알지만 이제 그만 좀 싸워, 부탁할게.

## 9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전경숙 · 경기, 회원

작년에 수원지회에서 송년회를 하면서 각자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받은 선물은 한 장의 쿠폰이었다. 펴보니 "영화 볼 때 아이 돌봐주기"였다. 단서도 붙었다. 단, "일로 맡기면 절대 안됨"이었다. 처음엔 어떤 물건을 기대했다가 앞으로 맡기게 될지 아니게 될지도 모르면서 받은 쿠폰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이 선물 꼭 써먹을 기회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냈다.

그런데 생각만큼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 저녁때 회의를 잡히면 부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일 때문에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고 저녁에 무슨 행사가 잡혀도 일이니까 안 되고... 선물하나 받아놓고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렇게 9개월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사무실 식구끼리 영화 보러 가기로 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의 할머니가 있어서 아이들 맡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부부만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다가 선물 생각이 났다.

아홉 달 전에 받은 쿠폰 선물이 그렇게 고마울 줄이야...

영화 한번 보는데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히 친정엄마에게 아이 맡기듯이 "선물 기억나지요? 오늘 우리 애들 부탁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아이문제로 고민 안하고 영화를 볼 수 있다니...

그러다가 생각이 났다. 왜 일때문엔 안되는지...

그것은 쿠폰 준 사람의 배려였다. 내가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부탁한다면 조건이 되건 안되건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영화 한편 보고 올 테니까 우리 애들 좀 부탁하면 거절하든 안 하는 우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내가 아이들을 부탁할 사람들 역시도 자기 아이들에게 부탁하면서 지내는 아이 엄마들일 테니까...

어째든 '아이 돌봐주기'를 부탁해놓고 영화 보러 가는 그날까지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내가 너무너무 운이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다.

결국 다른 이유로 영화를 보려는 못 갔지만 한 주 동안 느낀 자유로움, 행복함...

그것이 쿠폰이 준 선물이라 생각한다.

분명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리라...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감정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또 하나의 감정...

특히나 친정도 시댁도 부탁할 처지가 아닌 아이 엄마라면...

나도 기회가 되면 선물하고 싶다. 쿠폰 한 장을.

"영화 볼 때 아이 돌봐 주기, 단 일로 맡기면 안됨"

좋은 그림책 소개

## 모자사세요.

김경해 · 부산, 그림책 소모임

에스퍼 슬로보드키나 그림/글, 박향주 옮김, 사공주니어 출판



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소개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가 뭘까란 생각이 자꾸 든다. 그냥 재미 있는 책이라고 보기엔 여운이 있다. 나의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 책을 처음 본 건 아이가 처음 다니던 어린이집에서였고, 그 후 서점을 갔는데 아이가 "여기 원숭이 다게 재밌다"면서 이 책을 골랐다. 책을 사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같이 봤다. 어린이집 아이들도 마친가졌다.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원숭이들이 나오자 "와!" 한다. 거기서부터 시끌시끌한다. 원숭이 흉내 낸다고 야단이다. 책의 원숭이보다 흉내내는 아이들이 더 우습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보고 며칠을 계속 보니 조금 이상하다. 우스운 반면 뭔가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그 정체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느낌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보고있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 여기저기 있다. 평범하지 않은 모자장수, 다른 장수는 등에 모자를 지고 가는데 이 모자 장수는 모자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 그것도 꼭 골게 자기 모자까지 쳐서 13개를 이고 다닌다. 모자를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같다. 그날도 모자를 팔러 다니다 하나도 못 팔아 점심도 못 먹고 시내에서 시골로 모자를 팔러 간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않고 매사에 차분하다. 천천히 천천히, 모자도 하나씩 하나씩, 낮잠도 자고.

그러다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모자가 없어진 것이다. 모자를 누가 가져갔는지는 다 짐작 할 것이다. 그 원숭이들과 한 판 난리를 치르고 다시 시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책은 끝난다.

참 낙천적인 사람이다. 표지에도 나무 위에서 자고 있는 모자장수가 나온다. 콧수염 때문인지, 모자장수의 표정도, 나오는 원숭이들의 표정도 아주 밝다.

이 원숭이들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는 직접 보세요.



## 정치판에는 가을이 없다

황미혜 · 본회 정책위원

9월이다. 창문을 닫고 잠을 청한 지도 여러 날. 하긴 입추가 이미 한달 전이었음을 기억하면 이 바람이 어색할 것도 없다. 올 가을은 태풍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이 줄어들 거라 한다. 외야 별도 장대비도 두려워 않고 가을만 바라보던 이들의 한숨이 내 귀에도 들리는 듯 하다.

이 가을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신문과 방송에선 마치 선거기간이 시작된 듯 연일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를 보도하느라 바쁘다. 올 겨울은 우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지난 봄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과 기대로 흥분이 넘쳐났었다.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것만 같았고, 인물다운 인물을 뽑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것이 바로 올 봄에 치러진 민주당의 국민경선 때문이었다. 그러던 기대는 그 즐거웠던 봄의 끝자락부터 계속된 민주당의 신당논의로 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의 신당 창당 논의가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은, 그도 그럴 것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도 잦은 '신당 창당' 때문에 이제는 '신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그토록 잦은 신당 창당이 무엇을 바꾸었는지도 모르겠다. 새로 간판을 올린 정당에는 몇 명의 새 얼굴들이 영입되는 것 외에 인물도, 주장도, 국민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치를 하는 것도 여전하였다. 집권 외에 아무 목적도 목표도 없이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이다.

미국의 대표적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10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을 비터오고 있다. 클린턴이 지프게이트로 움푹달라지 못할 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당이었으며, 로널드 리건과 조지 부시를 연달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공화당이 클린턴에게 정권을 내준 후에 당을 새로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적도 없다. 물론 그네들과 우리의 역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100년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두 정당과 5년마다 변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을 비교하면 한숨과 욕이 튀어나온다.

여름철마다 내부공사를 하는 동네 목욕탕과 대통령 선거만 앞두면 신당을 거론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뭐가 다른가? 간판을 바꿔 단다고 서비스도 형편없고 지지분한테다 맛도 없는 음식점에 손님이 들끓을 리는 없다. 얼마 안가 한밤중에 무더진 허겔으로 술 한모금 넘기려는 취객들이나 반가운 손님들이 될 것이다.

정당도 마찬가지로이다.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당의 강령이나 주요 정책, 정당의 운영방식 등등 새로운 조직체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이념과 노선도 없이 그저 누구를 '얼굴'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뿐이다. 이 '얼굴'에 대한 논의도 그렇다.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로 안고 있는 자인지,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혹은 기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잣대는 '여론'이다. 그 잣대로라면 누구의 말처럼 장나라가 대통령감이다. 누가 되건 그가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인지, 그 정당의 가치와 방향을 대표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결정된 인물에 대하여 선전하고 그의 역량을 최대한 알려내며,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할 터인데 말이다.

하루 다르게 여러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그 후보에 따라 신당을 창당하네 마네 떠드는 민주당은 정치를 알고 하는건지, 그런 정치인들에게 나라 맡기고 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알고나 있는지...

12월 19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라고 한다. 석달 남짓 후면 필자는 정치환멸감을 느끼면서도 기어이 또 투표소를 찾을 것이다. 12월 19일이 되기 전에 정치판에도 꽃쟁이는 버리고 알곡만 남기는 가을이 오면 좋겠다.

## 하늘은 높고 보육교사는 살찌는 계절?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가을이다. 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 옛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계절이 돌아왔다. 음식에 관한 한 가장 넉넉하다는 한가위가 지났지만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 이번 호에서는 먹는 이야기 좀 해보자.

‘베스킨 로빈스31’이라는 골라먹는 재미를 홍보전략으로 하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한국에도 많이 널려있다. 아마 한 두번 정도는 이 가게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맥도날드는 이제 코카콜라와 미키마우스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코드로 세계 속에 그들의 음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패스트푸드 음식의 대명사로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인권단체, 신자유주의반대단체, 환경단체들이 이들 제품과 기업에 대해 제기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 패스트푸드가 건강을 해치고 다국적 기업들은 저개발국가의 어린 노동력을 착취하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서슴치 않는다는 소위 파렴치한 작태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다. (아닌가?) 그러나 이런 외부로부터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강고한 성처럼 모든 공세를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부에서 진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사람이 있다.

그는 아이스크림 큰 모양의 수영장에서 놀았고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딴 고양이를 키웠으며 종종 아이스크림으로 아침을 대신할 정도로 아이스크림에 둘러싸인 왕국 ‘베스킨 로빈스31’의 창업주의 외아들인 존 로빈스이다.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회사경영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지금 세상은 아버지 어릴 적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인간의 행위 때문에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음식물이 넘쳐나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2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른두번째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는 아내와 함께 필리핀의 해안의 작은 섬으로 이주하여 10년동안 스스로 필요한 음식을 재배하고 조달하면서 음식과 환경, 인간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책을 썼다. ‘음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이 책이 출간되자 미국에서는 5년만에 소고기소비의 20%가 감소했다고 한다. 확실히 책은 홍보보다 무섭다!

로빈스의 주장은 인간과 지구공동체의 건강이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 중요하다는 그의 신념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의 탐욕에 대항하는 투쟁에 필요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음식혁명

존 로빈스 지음  
2002년 9월  
시공사  
가격 201원

서 또 하나의 책을 썼다. 바로 <음식혁명>이다. 그는 이 글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음식과 이들 조장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인간과 자연을 해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의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당신도 햄버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열대우림(아마존)은 지구의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불린다. 세계 식물종의 80%가 이 지역에서 생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지구상의 산소를 60%이상 만들어 낸다. 그래서 아마존의 별명은 지구의 허파이다. 그런데 이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은 1초마다 미식축구장 만한 크기의 지역이 파괴되고 있다. 이유는 햄버거용 고기를 만들어내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이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1개당 작은 부업 크기 만한 밀림이 사라진다. 이런 끔찍한 사실 이외에도 존 로빈스는 책을 통해 육류선호와 기업이윤이 어떤 식으로 환경을 파괴하는지 하나하나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아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유전학이 우리 먹거리에 끼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다이어트 방법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식탁을 총체적으로 해부해 보자.

자, 이 글을 읽고 나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만 던져 주고 대안이 없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점 두 군대를 소개한다.

### ♣ 시골생활 건강식당(<http://www.countrylife.co.kr>)

서울 강남구 신사동 4거리에 위치한 식당으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뷔페식으로, 저녁시간에는 단체 손님 위주로 운영되며 가격은 1인당 7천원, 전화하면 배달도 된다. 전화(02-511-2402)/ 토요일 휴무

### ♣ 향토생활관 산채(<http://www.yescall.com/sanchea>)

서울 강남구 도곡동, 전철을 이용하신타면 3호선 매봉역하차, 4번출구, 양재역방향. 전화. 579-6787-8 생식, 자연식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생활교육]도 실시한다.

그밖에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 LG건강카페 음식정보 <http://www.lg.co.kr/korean/culture/health/foodinfo/>

♪ 해피스푼 <http://www.happyspoon.com/sunday.asp>

♪ 영화속의 음식 <http://design.i-biz4.com/~food/>

마지막으로 영화속의 음식이라는 사이트까지 소개하고 나니 웬지 음식과 관련된 영화도 몇편 소개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그런데 앞에서는 실컷 건강을 위해 제대로 먹자고 주장한 주제에 화려하고 기름이 흐르는 음식이 나오는 영화만 생각나니 이를 어쩔꼬.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

### ♪♪♪ 음식에 대한 영화, 음식이 나오는 영화

바베트의 만찬

음식남녀

구름속의 산책

식신

초콜릿

### ♪♪♪ 음식에 대한 만화, 음식이 나오는 만화

미스터 초밥왕

대사각하의 요리사

맛의 달인

신장개업

아빠는 요리사

## 연장 보육과 어린이집 흥기 난동 사건

김 숙 자 · 서울, 본인이공부방

**지** 난 4일 대낮 교회 어린이집 식당에 50대 정신병자가 난입, 흥기를 마구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남녀 어린이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우연으로만 넘기기에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연장 보육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라는 나의 생각이 좀 지나친걸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12시간도 모자라 10시 30분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곳에 시간당 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보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중의 하나로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한다면, 그들의 부인(남편)이 그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연장 보육을 해야만 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매년 한 구에 4개소씩 연장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부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던 말인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연장 보육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곳도 있다는 것을 안다.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시간당 4,000원의 수당으로 그들의 힘들이가 보상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작은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아니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교사들이 많다. 연장 보육도 결국은 이곳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10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했다가 다음 날 7시 30분에 다시 출근해야 하는 교사.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연장 보육은 다시 생각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내용이 아닌 새로운 사고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으로.

## 『공보육실현과 보육환경개선 활동기금마련 하루주점』 아이들이 신나는 세상! 부모가 즐거운 세상!

공보육실현과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의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주시요.

우리회는 1986년 설립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전신으로 하여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한 민간단체입니다.

우리회는 모든 아동의 인권보장 및 바람직한 보육권리의 실현을 위한 활동과 보육교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통해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아이들이 신나는 세상, 부모가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회의 활동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일시: 2002년 11월 2일 오후 3시-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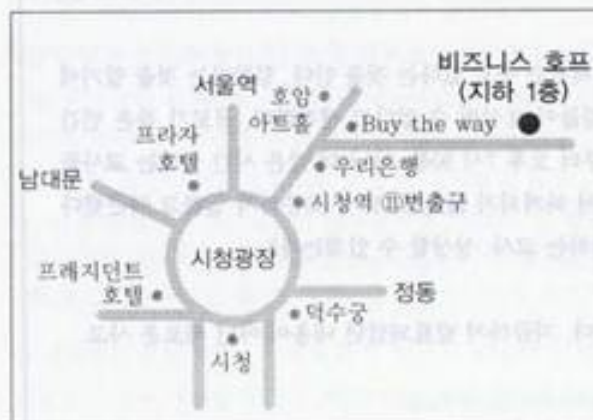
■장소: 비즈니스호프

(시청역 12호선/TEL 774-9992)

-꼭 10번 출구로 나오세요!! 꼭이요~

■주최: 한국보육교사회(02-2275-8505)

■ 장소 오시는 방법



## 양성평등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WORKSHOP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양성평등한 육아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양성 평등한 의식개선을 위한 WORKSHOP을 6곳의 지역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WORKSHOP은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와 나 돌아보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스스로의 양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점검하고, 교육과정의 양성평등한 관점의 재구성을 통해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용

|    |                                                                   |     |
|----|-------------------------------------------------------------------|-----|
| 1강 | 양성평등 육아문화가 왜 중요한가?<br>(한국보육정보연구소연구원/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 서정은 |
| 2강 | WORKSHOP-나의 양성평등 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br>(한국보육정보연구소연구원/국민대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 유정은 |
|    | 1부 나 되돌아보기                                                        |     |
|    | 2부 교육과정의 양성평등한 재구성                                                |     |

- 서울: 2002년 9월 7일 토요일 3시-7시 여성사회교육원 교육장(중구 장충동)
- 목포: 2002년 9월 14일 토요일 3시-7시 카톨릭회관 6층 (목포MBC앞)
- 광주: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3시-7시 여성발전센터 2층 제3강의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 인천: 2002년 10월 5일 토요일 3시-7시 인천여성노동자회 교육실
- 경기: 2002년 10월 12일 토요일 1시-5시 수원시부녀 아동 상담소 (구 터미널, 터미널타워빌딩701호)
- 부산: 2002년 10월 26일 토요일 3시-7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실 (전철1호선 동래역)

■ 대상: 강좌당 보육교사 선착순 30명

■ 참가비: 13,000원(정회원 20%할인)/ 입금은행: 우리은행 817-366200-02-001 이윤경

■ 자료집: 교육당일 1차 WORKSHOP자료집 배포/11월 2차 6개 지역 실시 결과 자료집 개별 배송

■ 신청: 02-2271-1548 이강선주 / ls29@jinbo.net (입금자 명/참석자/보육시설 명/전화연락처/주소)

■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 주관: 한국보육교사회 서울·광주·인천·경기·부산지부·목포지회(준)

■ 후원: 여성부

## 아빠에게는 육아의 기쁨을! 아이들에게는 차별없는 삶을!! 양성평등한 육아문화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

시민발언대

피켓전시

로고송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림전시

엄마, 아빠와 함께 손도장 찍기

양성평등한 엄마 아빠를 약속하는 소원지 붙이기

아이들이 들려주는 맑은 노래

엄마아빠 아이들이 함께 보는 그림책전시

지역에 따라 아이들 그림그리기대회, 아이들 사물놀이, 교사길놀이, 아이들 민속마당,

개사곡 노래자랑등이 진행됩니다.

서울>> 10월 19일(토) 오후 4시 장소

인천>> 10월 3일(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마당 오후3시

광주>> 10월12일(토) 상무공원 오후 4시-6시

부산>> 10월 26일 노포동 비스터미널

목포>> 10월 19일(토)

경기>> 10월 13일(일)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주관: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부산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광주전남지부, 목포지회(준)

후원: 여성부

##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일본 오사카의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와 보육교류를 한 지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의 보육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보육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보육 흐름은 어떠한지 등을 함께 나누고 이후의 일본과 한국의 보육교류의 전망을 내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0년의 역사를 축하하고 이후의 보육발전에 대해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일 시: 2002년 11월8(금)-9일(토)

장 소: 여성플라자(대방역 3번출구)

주 최: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 한국보육교사회 / 한일보육교류회

일정안내

### ◆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 세미나

"21C 보육의 다양한 역할을 점검한다."

— 한일 양국의 보육현황과 과제

11월 8일 오후 2시 ~ 5시 /여성플라자 회의실

발표자: 에다모토 신이치로, 이윤경, 스즈키 쇼조, 호리 도모하루, 야마나카 타미오

### ◆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 사전 행사-한일양국 보육관계자 교류의 장

#### ● 보육교사 교류의 장

장소: 여성플라자 한실

일시: 2002년 11월 9일 오후 2시 ~ 4시

한일 양국의 보육교사들이 양국의 보육내용을 교환하며 교류하는 친교의 장입니다.

#### ● 보육시설 운영자 교류의 장

장소: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일시: 2002년 11월 9일 오후 2시 ~ 4시

한일 양국의 특수보육 운영에 대한 교류의 장입니다.

#### ① "장애통합보육의 역사와 장애통합에서의 갈등해결에 관해"

발표: 허구치 슈이치(노조미노론 보육원 이사) / 조선경(이웃사랑어린이집 원장)

#### ② "영아보육의 실제"

발표: 모리모토 (세이와 보육원 원장) / 소진택(삼강어린이집 원장)

#### ③ 질의 및 응답

# ◆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 및 연찬회

장소: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일시: 11월 9일 오후 4시 ~ 8시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은 교류10년사 보고, 한일 공동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연찬회에서는 친교와 교류를 위해 일본어 통역이 각 테이블마다 배치됩니다.

## ■ 참가신청방법

11월8일 참가비 15,000원 (기념자료집 포함)

11월9일 참가비 25,000원 (연찬회비용 포함)

전화 02-2271-1548 (담당자 이경너)/참가비 사전입금 우리은행 817-366200-02-001 이윤경

## 한국보육교사회

우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02) 2275-8506 / 담당자:이경너/

kdta@chollian.net /www.kdta.or.kr

# 프로젝트교사 연수

주최: 소명프로젝트교사연구소

강사: 민성혜/이화영/임호빈

강의특색: 교사특성에 따른 그룹별 지도

일시: 2002년 10월 12일부터-11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장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강의료: 200,000원

접수방법: 이메일로 문의후 수업료 입금 접수

계좌번호: 국민은행 165-21-0082-562

예금주 민성혜

이메일: projectidkr@yahoo.co.kr

\* 궁금하신 것은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연수 계획서와 수강신청서 보내드립니다.

## 삼성어린이박물관

### "불우 어린이 초청 행사"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무료로 초청하여 당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행사명: 삼성어린이박물관 "불우 어린이 초청 행사"

2. 행사참가 및 신청문의: 02-423-4690

3. 행사 진행 내용

### 사전예약

불우한 어린이들이 소속된 시설 (예.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방과후 아동보육센터등) 장이 삼성어린이 박물관으로 사전 전화예약

방문가능연령: 만 4세 이상의 어린이(48개월 이상 어린이 20명 이상

관람가능 일시:

2002. 4. 2-2002. 12. 20 동안 학기 중 화-금요일 오후3시-5시

신청접수 및 문의: 2002. 4. 2 부터 선착순 접수 (T.02-423-4690)

참고: 교통수단은 각 시설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반드시 사전예약으로 방문일정을 확인받아야 함

## 세계 공룡 대전

살아 움직이는 공룡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10여 미터의 거대한 고룡 20여종 30여 마리가 살아 움직이고, 소리지르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00여평의 전시관내에 공룡의 대와 티라노 사우루스가 살아 움직이며, 아파토사우루스를 잡기위해 트리케라톱스와 대결을 벌이는 육상 공룡관, 신비한 우주세계에서 우주 공룡들이 지구를 방문은 킹핀드, 레드플라, 스페이스티라노 등이 있는 우주공룡관에 있으며, 바닷속 공룡(해룡)들이 쫓고 쫓기는 스릴있는 대결을 눈 앞에서 생생하게 입체로 볼수 있는 입체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행사기간: 11월 15일까지

이용요금: 개인- 어른4,000 / 청소년, 어린이3,000

단체- 어른2,500 / 청소년, 어린이3,000

(단체 20인 이상)

장 소: 어린이대공원

교통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하차 2 번출구

버 스: 57, 500-1, 146-1, 567, 65

문 의: 02-452-1185

## 산림욕장에서 함께하는 가을 숲 체험 교실

가을 숲에서 정겨운 풀벌레 소리와 함께 하

세요]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대공원 식물원에서는 산림욕장에서 함께 하는(가을숲 탐험교실)을 개설.

#### □ 교육운영 계획

대상 : 초등학교생 및 학부모

인원 : 총10회 600명(60명/1회) 매주(토, 일요일)

기간 : 2002. 9. 28 ~ 10. 27

시간 : 토요일 (오후, 15:00~17:30)

- 일요일 (오전, 10:00~12:30)

장소 : 과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내 생태관찰로

교육내용 및 방법 : 현장해설 및 탐방관찰

#### □ 교육참여 접수방법

기간 : 2001. 9. 9(월) 09:00부터 ~ 10. 27까지

방법 : 인터넷 접수(개인 및 단체접수가가능)

장소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grandpark.seoul.go.kr)로 접속

안내 : 서울대공원 식물원 (02) 500-7862 ~ 4)

준비사항 :

- 참가비 : 어린이700원 / 학부모1,500원

(동물원 입장료에 준함)

- 교재비 : 1,000원

- 기타 : 필기도구, 돋보기, 색연필

(크레파스),공책(A4-6장)

- 도시락 : 일요일은 도시락준비

교육접결장소 : 동물원내 산림욕장입구

#### 인천광역시 보육시설연합회

#### 현장 공모전 안내

인천광역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는 인천광역

시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보육현장의 교육·운영 프로그램 사례를 현장 공모합니다. 시설장,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연구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인천지역의 보육의 질을 높여가고자 하는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공모내용

##### 1. 운영 프로그램 및 행사

예시) 계절별 아동 행사, 부모 참여수업, 부모 교육 프로그램, 입학식, 졸업식, 생일잔치, 학습 발표회 등 원내 행사를 기획하고 창의적으로 진행되는 방법, 교사교육 프로그램, 효율적인 원운영 관리, 부모상담사례, 보육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등

##### 2. 교육, 보육 프로그램

예시) 프로젝트 접근법의 현장적용 사례, 주간 교육프로그램 모습, 수 문자지도, 성교육 사례, 과학 교육, 영어교육, 영아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 아동 관찰, 문제행동지도 사례, 아동 발달 지도, 생활 습관 지도, 장애아 통합 보육 사례 등.

##### 3. 사례예제 다운 로드 받는 방법

<http://www.icda.or.kr/>

####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예비교사를 위한 10월의 교육강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지난6월에 이어 제2회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교육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예비 보육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강〉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아는 것이 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알아야 될 우리 권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다!!

보육교사로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알아둔다면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겠지요?

경력관리,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알기 쉬운 법률 상식을 통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사 :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일시 : 2002년 10월 15일 오후 3시-5시

장소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교육장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 〈2강〉 양성평등적 접근을 위한 시각정립을 위하여

양성평등은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동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적 관점과 태

도로 관계 맺을 때 가능합니다.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의 삶 속에 양성평등적 관계맺기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사 : 서정은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일시 : 2002년 10월 17일 오후 3시-5시

장소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교육장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대상 : 예비보육교사

접수 : 전화 02-2271-1548 담당자 : 이강선주

교육비 : 강좌당 10,000원

사전입금 : 한빛은행 817-366200-02-001 이윤경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10번 출구로 나오신 후,

- 상업동기소 방향으로 150m 정도 올라오면, 오른쪽에 보육정보센터 (3,4층)가 있습니다.

## 중앙소식

- 7월5일 교육센터 [영아교사 교육강좌] 세 번째 강의를 창산교육장에서 있었습니다.
- 다음은 지키는 엄마모임에서 소혜순 교육부장님이 오셔서 자연친화적으로 우리 아이 키우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 서울지부 회원 이신 김정은 선생님께서 새터어린이집 영아건강관리 사례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영아교사교육강좌는 3회 동안 5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7월6일 11시 교육위원회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 7월 8일 정책위 회의가 일본의 보육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7월 9일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작하는 유아성폭력예방비디오 제작 기획회의에 이윤경공동대표가 전문위원으로 참가하였습니다.
- 7월 10일 한나라당 여성위원과 이윤경 공동대표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7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회와 한국여성민우회의 주최로 '6·13지방선거결과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7월 12일 포항여성회에서 주최한 여성복지학 교에서 이윤경공동대표가 '보육-함께 키우는 아이'라는 주제로 보육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7월 16일 여연대표자들과 회원단체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중앙사무국과

- 김진숙 서울지부장, 이인희 인천지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7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들과의 단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 7월 18~20일 경주에서 여연대표자 수련회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연과 회원단체들의 과제와 전망, 향후 여성운동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7월 19일 인천지역 건강교사모임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에서의 아동건강관리 실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7월 20일 4시 중앙어린이집 방과후교실에서 [양성평등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어린이집 역할세우기]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관심있는 부모님들과 보육교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선경선생님과 유정은 선생님이 발제해주셨습니다.
- 7월 24일 보육과장이 여성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본회와 여연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경숙여연상임대표, 남인순 여연사무총장과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2003년도 보육예산편성과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7월 29일 조직위원회 3차회의가 대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사례 검토를 하였습니다.
- 8월 1일 여성부차관이 여성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단체장들과 오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

- 니다.
- 8월 6일 관악지역보육사랑방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관악구의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모모임으로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8월 8일 성폭력상담소에서 유아성폭력예방비디오 제작 2차기획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8월 10일 정책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성정책과 보육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8월 10일 10시 교육위원회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 8월 11일 조직부장연석회의가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름수련회 준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8월 22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연대 주최로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사이버의 정감시단 교육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지역운동으로서의 보육'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8월 24~25일 2002년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수련회 "참여, 신명, 그리고 전진"이 변산고사포해수욕장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참가하신 회원여러분과 준비하신 지부의 조직부당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8월 29일 복지부에서 주최한 2003년도 보육정책과제 프로젝트 심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8월 30일 부천여성의 전화에서 주최한 유아

교사의 성평등 인식 교육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여성정책과 보육'이라는 주제로 강의 하였습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권역별 여름연수

(인천지부)

7월 20일 오전 10시-오후 3시 부평문화원

주제: 옛날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을까(강사 편해문)

참석: 38명

(광주지부)

6월 29일, 7월6일 오후3시 30분 - 6시

주제: 영아교사교육

참석: 30명참석

(서울지부)

7월17일 오전 10시-4시 여성플라자

주제: 아이들과 나누는 열린대화 동등한 대화

참석 71명

(부산지부)

2002년 9월8일 (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종합센터 원경시청각실 (1층)

주제: 유아문자교육의 반성과 새로운 접근

참석: 130명

## 사람과 사람들

## 축하합니다

경기의 이지윤 선생님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진통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딸이와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서울의 주혜민 선생님이 역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지원 선생님과 다르게 20시간이나 진통을 하고 낳았다는군요. 그토록 원하던 딸을 낳았으니 씩씩하게 키우세요.  
서울의 이마옥 선생님이 역시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첫째도 아들인데 둘째도 아들이라는군요. 임신중독이 있어 좀 걱정했는데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 두 아들 모두 건강하게, 예쁘게 키우세요.  
광주전남의 이정미 선생님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랍니다. 튼튼하게 키우세요.  
이번 호에는 모두들 둘째들을 낳으셨네요. 역시 아이들을 좋아하는 보육교사라 그런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요즘에도 둘째 아이들을 떠올려하니 낳았습니다. 그러.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부산의 장정숙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광주의 김수중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의 김진숙 선생님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인천의 이숙희 선생님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은 누구 결혼한다는 얘기보다는 누구네 부모님이 별세하셨다는 얘기에 마음이 더 쓰입니다. 아마도 제가 나이를 먹고 제 부모님 생각에 그러하겠지요. 언젠가는 이별을 해

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막상 현실이 된다면... 그래서 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 새로운 출발에 박수를...

인천, 예술어린이집의 이 순 선생님이 휴직을 마치고 9월부터 복귀했습니다.  
광주전남의 박미영 선생님이 정은이를 출산하고 도담도담어린이집교사로 복귀했습니다.  
광주전남의 박화명 선생님이 무사히 건강을 되찾고 아르바이트로 인터넷 옷가게에서 일하십니다. 모두 열심히, 즐겁게 일하세요.

#### 회비를 내셨습니다. (02년 8월말 기준입니다.)

〈서울지부〉 8월 완납  
〈인천지부〉 8월 완납  
〈경기지부〉 8월 일부  
〈부산지부〉 6월 완납  
〈광주전남지부〉 3월 완납  
〈평생회원〉  
최순옥 8차 5만원, 서정은 100만원  
〈회원회비〉  
서은희 2만원, 황미혜 4만원, 하미선 2만원, 남향숙 1만원, 조선경 2만원, 이성혜 2만원  
〈자료회원〉  
백산어린이집, 태영어린이집  
〈후원해 주셨습니다〉  
은수미 1만원, 고정미 3만원, 윤선영 10만원, 원명순 2만원, 김종원 1만원, 장성일 1만5천원, 박재형 1만원, 류호선 10만원, 엄소현 2만원, 강영신 1만원, 유정은 5만원, 백선희 2만원

#### 본회 7·8월 월동일지

|    |        |                  |
|----|--------|------------------|
| 7월 | 5일     | 확대집행위<br>교육센터 강좌 |
|    | 13-14일 | 운영위원회 2차 훈련프로그램  |
|    | 16일    | 회원단체 간담회         |
|    | 17일    | 서울, 경기지역 여름연수    |
|    | 19일    | 인천지역 건강교사모임      |
|    | 20일    | 인천지역 여름연수        |
|    | 29일    | 조직위원회 3차 회의      |
| 8월 | 2일     | 확대집행위            |
|    | 6일     | 관악지역 보육사랑방모임     |
|    | 11일    | 조직부장연석회의         |
|    | 13일    | 확대집행위            |
|    | 24-25일 | 전국회원 여름 수련회      |

## 편지부에서

추석도 지나고 벌써 10월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은 이미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시고 평가까지 끝냈을 시간인데요, 그저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오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사람들과 보육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각 당의 보육정책에 대한 공약을 듣고 나니 어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할지 더 막막해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면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제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희망이라 여기시고 투표하세요. 그리고 같이 외칩시다. 공보육 실현을...

##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관매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자료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mailto:kdta@chollian.net)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mailto:wawbest@jinbo.net)